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 교회가 울해도 각 공동체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월 14일 (토) 제 161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한인교회 4,018개, 주별 1위 CA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2위-뉴욕, 3위-뉴저지...전년도 비해 큰 차이 없어
본지 '2017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2016년도(11월말) 미국내 52개 주 한인교회 수가 총 4,018개로 집계돼, 전년도(2015년 말 4,016개) 보다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7개국의 한인교회는 1,298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6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연례대로 캘리포니아 1,162교회(1,163), 2위 뉴욕 420교회(416), 3위 뉴저지 259교회(255), 4위 버지니아 198교회(199), 5위 텍사스 195교회(196)로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계됐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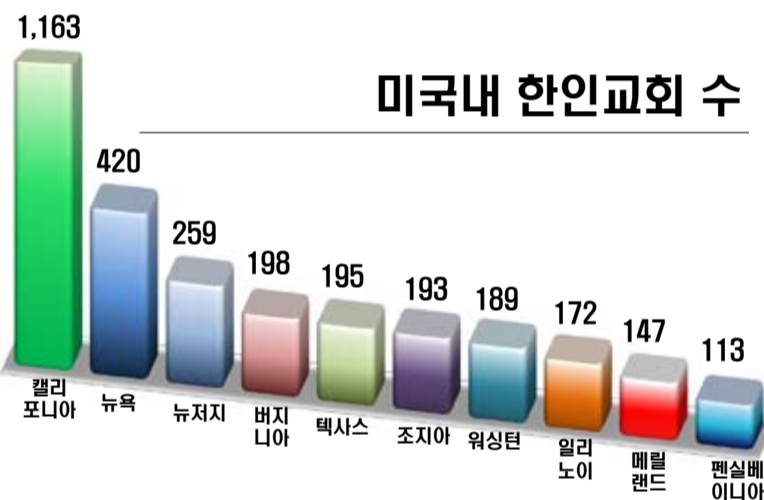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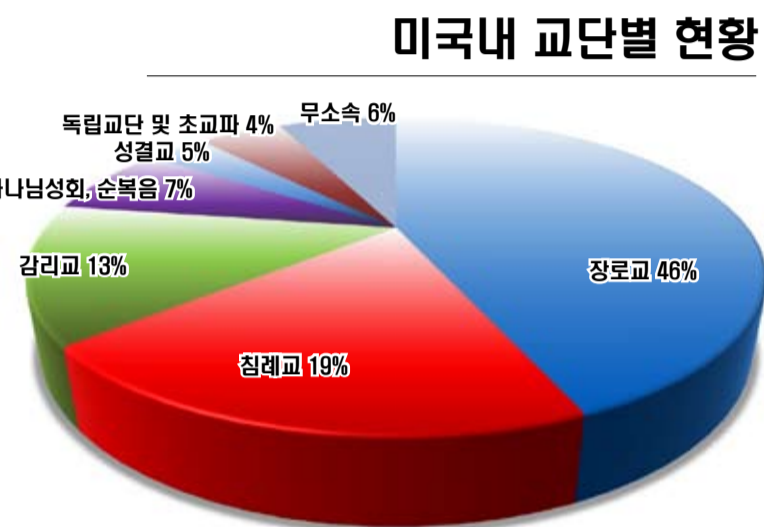
최다 교회수를 나타낸 5개 주는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6위 조지아 주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며 교회 수도 193개로 같다. 7위는 워싱턴 189교회(189), 8위 일리노이 172교회(173), 9위 메릴랜드 147교회(148), 10위 펜실베이니아 113교회(113)가 차지해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6위부터 10위도 지난해와 비교해 동일하거나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77개국에 총 1,295교회가 리스트업 돼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해외교회 1위는 예년도 동일하게 캐나다로 392교회, 2위는 일본



199교회, 3위 호주 172교회, 4위 독일 98교회, 5위 아르헨티나 55교회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으며 교회 수는 동일하거나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6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

국(54)이 차지했으며, 7위 브라질(45), 8위 뉴질랜드(35)에 이어 파라과이(21), 멕시코(20) 순위로 나타났다.

(6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뉴욕지구 5개 노회 연합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기사 10면]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 2017 의미 조명

독일개신교회, 500주년 기리는 프로젝트 '루터10년' 가동, '진단과 전망' 제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판을 뒤엎어버렸고, 중세교회의 탐욕과 뿌리 깊은 부패, 영적인 마비를 폭로해 신앙의 중심과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한 사건이다. 독일개신교회를 필두로 세계교회들은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기 위한 많은 행사를 기획할 것이고, 많은 언론매체는 특집 기사로 다룰 것이며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판을 뒤엎어버렸고, 중세교회의 탐욕과 뿌리 깊은 부패, 영적인 마비를 폭로해 신앙의 중심과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한 사건이다. 독일개신교회를 필두로 세계교회들은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기 위한 많은 행사를 기획할 것이고, 많은 언론매체는 특집 기사로 다룰 것이며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개신교회의 역사가 500년이 되는 해다. 사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용어는 1529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그 정신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반박문을 내건 루터의 행동에서 이미 발로뒀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를 500주년으로 기념한다.

유럽의 개신교회, 특히 독일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로젝트 '루터10년'(Luther Decade)을 이미 10년 전에 착수했다. 매년마다 종교개혁과 연관된 주제를 정하고 학술 및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500년 전과는 극명하게 달라진 현대 세계에서 당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고, 현대 교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된 뜻이 있다.






2008년은 '루터10년' 프로젝트 출발의 해였다. 향후 10년 동안 전개할 구체적인 사업의 아웃라인을 정했다. <2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교회를 위한 운동-교회와 ... 전남수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후 전략... 배우고 성장하라!
3면	5면	7면	8면	16면

국제 24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Better Together

"포경신도를 깨운다"

날짜 2017년 5월 1일 - 6일 (월 - 금)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참가비 \$450
- 사전등록 할인 \$390 (2017년 3월 31일까지)
- 추가 특별 할인 부부동반/ 풀타임 신학생 (\$100 할인, 2017년 3월 31일까지)
등록 마감 2017년 4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bit.do/cal2017
* 모든 참가비는 식비, 숙박비, 등록비 및 공항픽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15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강의와 실습을 통한 제자훈련 인도법을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사역을 돕는 Workshop
날짜 2017년 5월 8일 - 11일 (월 - 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7년 4월 14일
등록 문의 국제제자훈련원

‘화해와 출발의 시그널’ · ‘교회일치 위한 역사적 기회’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 2017 의미 조명



시론

‘회개’, 믿음의 부자!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회개란 덴마크어로 ‘위안, 포용, 배려, 웰빙 분위기’에서 유래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혼자서 보내는 아늑한 시간’을 뜻합니다. 가령 호화스럽거나 화려하지 않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와 지인들이 모여 작은 양초들을 밝히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일상의 즐거운 대화들을 함께 나누며 보내는 시간을 ‘회개’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화려한 것보다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으려 하기에 스스로 느끼는 ‘행복 제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의 ‘회개’, 가끔은 혼자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잔 손에 담고 그 따스함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여유 있는 회개!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회개 10계명을 말합니다. ①분위기를 만듭니다. ②지금 이 순간을 누린다. ③디저트와 차로 달콤한 휴식을 가진다. ④모두를 평등하게 생각한다(‘나’보다는 ‘우리’). ⑤감사하고 만끽한다. ⑥분위기를 조화롭게 한다. ⑦긴장을 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⑧감정 표현은 쓴다. ⑨화목한 마음으로 추억을 되새긴다. ⑩편안하고 포근한 장소를 정한다. “회개”는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일과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한해도, 또 그전에도, 어느 삶의 현장은든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삶의 여유 없이 생존을 위한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해야 하지만 어느덧 “이루었으나 무엇인가를 놓치고 잃어 버린 듯한” 공허한 마음을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관계의 상실”이 아닐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성도들, 주변 이웃들 지인들과의 관계 등등. 관계들 안에 채워져야 할 내면의 충만함 바로 그것이 메마르고 고갈되었을 때 느끼는 공허가 아닐까? 하나님과의 깊은 실존적 만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다면, 부부와 자녀들과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와 비전을 나누지 못한 채 혈연이라는 끈과 울타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타인과의 만남이 삶을 나누는 상생의 만남이 아니라 내 이익과 일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만남으로만 작용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깊은 내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진정한 행복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람은 질문하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던진 처음 2가지 질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가 봅시다. 처음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Where are you? 창3:9), 다음 질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Where is your brother? 창4:9)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를 짓고, 숨고, 가리고, 도망치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과 같은 우리들을 쫓아 없애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 관계”입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하다가 아벨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이웃과의 상생적 관계”입니다. 신약의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나의 십자가(My Cross)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눅14:27)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즉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 관계의 회복, 나와 이웃(부부, 부모, 자녀, 친족, 지인, 목회자, 성도, 사업 파트너, 주인, 종업원 등등)과의 상생적 관계의 회복, 각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실존적 관계로의 치료와 회복이요, 상생적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2017년을 열어나가는 새해에는, 이제 일과 성취를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걸음 잠깐 멈추고(Stop & Listen), 매우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 관계를 회복하여 종교인의 틀을 깨고 신앙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이나 나의 주변을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또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상생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앉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부자로 사는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미주 크리스천신문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전합니다.

pastor.eun@gmail.com

(1면에서 계속)

특정인 혹은 특정교회가 아닌 모두의 종교개혁이 되도록 일반 대중에게 초점을 맞춰 전시회,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종교개혁과 직접 연관된 역사적인 장소를 모두 개보수하여 보존 내지 후대에 남긴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2009년의 연중 주제는 ‘종교개혁과 신앙고백’이었다. 특히 1509년 출생한 칼뱅 탄생 500주년을 겸해 축하하고, 개혁자들이 강조한 교리문답의 중요성과 신앙고백의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2010년은 ‘종교개혁과 교육’을 연중 주제로 삼아, 필립 멜란히톤(1497-1560)을 조명했다.

2010년은 그의 서거 450주년이기도 했다. 멜란히톤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로 비텐베르크대학 개혁과 독일 교육제도 개혁에 탁월한 두각을 보여 ‘독일의 스승’(Praeceptor Germaniae)이라 불렸다. 2011년

의 자유와 인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고, 종교개혁을 오늘 이 시대(here and now)에 반영해 해결하고 깊이 토의해야 할 당위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2015년의 연중 주제는 ‘종교개혁과 예술 그리고 성경’이었다. 2015년은 루카스 크라나흐 2세(1515-1586)의 탄생 500주년의 해였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술을 재평가하고, 당시 매체의 혁명이

은 교회분열의 역사적 과오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따라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가톨릭 교황이 종교개혁일 예배에 참석해 양 교회 간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루터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구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작업들이 이미 전개되고 구 열매들이 맺

(Perspectives for the Reformation Jubilee 2017) 전문을 소개한다. 동 문서는 독일 개신교회(EKD)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유럽의 종교, 문화, 사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유산에 근거해 개신교는 다원화된 사회의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할 능력을 갖고 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루터와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되새김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자 시간이다.

종교개혁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영향력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통한 모든 사건 하나하나



- △2008 ‘루터10년’ 프로젝트 출발 △2009 ‘종교개혁과 신앙고백’ △2010 ‘종교개혁과 교육’
- △2011 ‘종교개혁과 자유’ △2012 ‘종교개혁과 음악’ △2013 ‘종교개혁과 관용’ △2014년 ‘종교개혁과 정치’
- △2015 ‘종교개혁과 예술 그리고 성경’ △2016 ‘종교개혁과 새로운 세계’ △2017 ‘희년’ 선포

은 ‘종교개혁과 자유’가 그 주제였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개신교 초기부터 핵심 특징이 됐다.

특히 이 주제와 연관해 루터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1520)는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좋은 안내자 역할을 했다. 2012년은 ‘종교개혁과 음악’으로 정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음악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음악은 회중찬송의 형식에서 개인 찬송의 형식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디테일해지면서 구체화됐다. 바흐(Bach), 슈츠(Schütz), 텔레만(Telemann)과 헨델(Händel) 등 많은 음악가가 등장했다. 특히 2012년은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합창단 창단 800주년의 해였다.

2013년은 ‘종교개혁과 관용’이었다. 유럽 연합이 28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지만 공존을 위한 정치와 경제적 통합은 반복되는 주제이며, 난민에 대한 관용과 수용역시 가장 시급한 현대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은 ‘종교개혁과 정치’를 연중 주제로 채택했다. 권위와 책임, 권력과 신뢰의 상관관계, 양심

종교개혁에 준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2016년의 주제는 ‘종교개혁과 새로운 세계’다. 종교개혁은 비텐베르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오늘날 4억 이상의 개신교인들은 그의 신앙적 뿌리를 종교개혁에 두고 있다.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기념예배를 드리고, 신앙 및 신학 그리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다. 사실 루터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알려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삶의 대상이요, 내용이여야 했다.

한편 독일개신교회가 2017년을 ‘희년’으로 선포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화해와 출발의 시그널’과 ‘교회일치를 위한 역사적 기회’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는 독일개신교회가 더 이상 500년 전 과거의 기억과 업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종교개혁이 초래한 의도치 않

어지고 있다. 이는 교회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로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 역시 ‘종교개혁의 영적, 신학적인 유산’을 교회사적인 공동의 유산으로 수용함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해 양 교회에 부여된 현재적인 공동의 선교과제를 함께 수행해나간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는 21세기 근대이후의 세속화된 사회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이 지녔던 영적인 영향력과 선교동력이 쇠퇴한 유럽교회가 취한 현실적인 대응이며 새로운 출발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한 진단과 전망

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영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인식되고 평가된다. 따라서 2017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행해지는 모든 준비는 종교개혁과 그 영향력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기회이자 의사소통을 시작할 하나의 도전인 셈이다.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의 해체를 촉진시켜 주도적인 교파들 간의 모순을 드러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형성시켜, 종교와 문화의 다양화 및 다원화라는 특징을 가진 유럽사회를 이루게 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인턴십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오늘 이 시대의 삶과 사역 의미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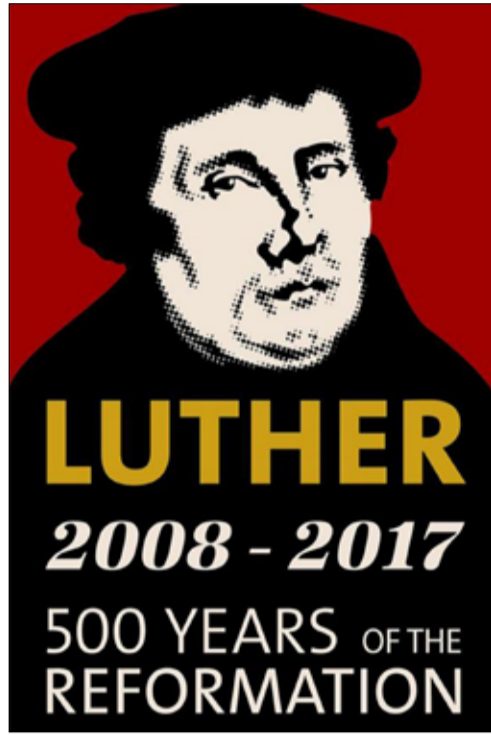
(2면에서 계속)

이러한 다양화는 종교적인 대립에 폭력으로 반응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현재까지 그 후예가 존재하는 교파들 사이에서 종교전쟁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다원화를 향한 이러한 발전 속에 유럽은 분리되고 적대시 된 교파들 간의 평화와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배타적으로 진리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관용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도록 규정들을 구상했다. 이러한 발전은 1555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됐는데, 이 조약은 '분리를 통한 평화'라는 구상을 통해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첫 발걸음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 이루어진 계속된 발전은 교파와 종교들 사이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으로부터 유래한 개신교는 개인과 공적인 삶,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행위, 정신적인 산물인 문화의 양식, 법 해

역할의 차이로 보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위해 개인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자각시켰다. 종교개혁은 이웃 사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실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결과로 규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웃에 대한 관계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속에 있다는



중심적인 관심사는 성경과 설교였다. 성경이 일반 대중의 언어로 번역되고, 성경에 근거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강해 설교가 예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은 많은 대중에게 필요한 표준 언어의 창시자가 됐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 개신교가 갖게 된, 언어 및 말씀과의 특별한 관계는 우선 교회와, 후에는 세속 문화의 시와 문학에 반영됐다.

종교개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기본신념에 근거해 교육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신앙은 교육받은 신앙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교리문답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끄는 배움을 위한 수단이 됐다. 그리스도인 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양성을 위해 어느 곳에서도 학교가 있어야 했다. 학교 교육의 필요성은 개신교가 보급된 지역에서 보편적인 교육의 무와 교육참여의 도입을 촉진시켰고, 이것은 서양 세계의 공공자산

국가의 구분은 개신교 역사에서 여러 차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교회를 구성원의 비계종적 공동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주된적인 몇 무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모델이 아니었다. 아니 심지어 그 자체가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회를 위해 주장되다가 정치 영역에서 급진적인 평등사상으로 전개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개신교가 주축을 이루는 많은 국가들(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 미국)에서 발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모든 세례자가 사제라는 사실에 대한 예식적인 표현은 말씀의 선포 형태인 예배의 공동 찬송에서 나타난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은 다양한 음악분야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기독교의 특별한 표시인 예배에서의 성악과 악기연주 등의 수많은 음악 형태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종교개혁에 의해 결정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결과인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섬김은 개신교에서 사회질서와 사회본질의 새로운 형태를 초래했다. 사회적인 문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 능력이 있어야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한 사역을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담담히 전하면서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힘이 들어 괴곤하여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나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인생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시간을 맡겨주신 것이다. 나중에 주인 앞에서 그 시간을 얼마나 주인의 뜻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심판과 그에 따른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말씀을 하셨다. 내가 불을 멀리서도 볼수있만 불의 능력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불에 가까이 갈수록 불에게서 나오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추운 겨울, 불을 멀리서도 보이지만 그 불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곳에 불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 있는 것일 뿐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가면 그 작은 불은 더욱 크게 보일 것이다. 더욱 가까이 가면 그 불은 나에게 내 몸이 따뜻하여지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불이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은 마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점점 따뜻하여질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이 채워지는 것이다. 더욱 가까이 가면 몸이 뜨거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뜨거운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필박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것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차갑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식어지지 않는 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하여 충성히 섬기게 되는 사랑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닦으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은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법칙이다. 문제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후11:23-28에서 보면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향한 자신의 마음을 꺾지 못한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 지속적으로 그 능력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 방법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이 높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약속이 오늘도 있음을 알고 모리아 산으로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이미 여호와 이레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새해 결단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 사역자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8). 아멘.

sangdkim@yahoo.com

모두의 종교개혁 되도록 대중에 초점 맞춰 전시회, 학술대회, 문화행사 개최

종교개혁과 직접 관련 역사적 장소 개보수, 보존 내지 후대에 남기도록

석, 학문개념, 예술적인 표현양식 등을 모두 새롭게 구성했다.

그러한 포괄적인 역사적 의미를 가진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적인 성격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에서 중요시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과 갖는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가 종교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방식, 즉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어떤 중재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발견하게 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존재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연적인 구성(성), 사회적인 상태(신분), 개인적인 능력(성공)과 종교적인 성취(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복과 인정하심에 근거를 두었다. 종교개혁은 자유를 이러한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고 이해했다.

종교개혁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이 사제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어떤 계층적 질서 없는, 모든 교회 구성원의 연합으로서 이해하며, 교회 안에서의 차이는 단지

사실은, 마틴 루터의 이종논제에서 고전적으로 표현됐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종속되어 있다"(“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520).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인간의 존재, 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종교개혁적인 언급은-복음적인 교회에서조차 항상 환영 받는 것은 아니지만-수백 년이 지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넘어 서양 세계 전체에, 그리고 사회 각 분야, 특히 문화, 학문, 교육, 법, 정치,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믿음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다. 종교개혁적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성숙을 위해 부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이 됐다.

종교개혁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요구하고 후원한 결과, 개신교 국가들, 무엇보다도 독일에서는 계몽주의가 발전해 신앙 및 교회와 긴장관계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적대적인 대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사이에는 생산적인 갈등이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내세운 계몽주의적 요구는, 이제는 종교개혁이 의존했던 하나님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각 개인의 직접적인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 종교개혁적인 통찰의 전개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이 믿음에 근거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제도들이 인간의 믿음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 사실을 통해 교회와 국가 간의 분명한 구분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근대 기본권이 형성됐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부여 하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야 하는 교회와

제들을 돌보는 것(병원과 빈민들)이 이제는 전체 공동체의 일이 됐다. 이로써 종교개혁적인 자극들이 근대 세계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

그때까지는 수도원제도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영적인 소명으로서의 직업 이해는 모든 사람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자신의 장소에서 각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영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으로 간주됐다. 모든 노동 분야가 기독교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러한 확신은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르는 시점에서 종교개혁이 신학과 교회를 넘어 현대 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위해 갖고 있는 적절성을 제시하고, 또한 개인주의, 다원주의, 세계화로 특징 지워진 시대에서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타당한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7면으로 계속)

2017년 GMS 미주선교사 훈련(OMTC) 4기과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눅 4:43-44)

한국 최대 선교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미주 해외선교사 훈련원(OMTC)에서 2017년 장기 선교사 훈련과정을 진행합니다. 본 훈련은 2,492명의 선교사를 98개국에 파송한 GMS 선교사 훈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GMS 선교사 파송자격과 장기적으로 GMS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실버 선교사를 위한 훈련입니다.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와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교사로 꿈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미 선교필드에서 파송단체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환영합니다. 강사진은 GMS 이사들과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신학자들과 현장 선교사들이 알차고 수준있는 강의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1. 훈련기간: 2017년 2월13일(월)-3월3일(금) 3주간
2. 훈련장소: 컴미션(Come Mission)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213)383-5499
3. 강사: 박무용 OMTC 이사장, 이상돈 이사, 문상돈 이사, 이병구 선교사, 박기호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김정현 선교사, 김수봉 선교사, 이승일 선교사, 박시경 선교사, 김영록 선교사, 박선기 선교사, 김명환 선교사, 김기동 목사, 김현완 교수, 김예녹 교수, 이근 목사, 조나단 강 박사 및 전문 강사, 현장 선교사
4. 훈련비: 1인당 1,300달러(숙박과 음식 포함)
5. 등록 마감: 2월4일
6. 훈련비 납부방법: 체크로 하실 때 Pay to GMS로 하시면 됩니다. (체크 보낼 주소: 319 W Lambert Rd #16, Brea, CA 92821 Mr. Byounggu Lee)
7. 훈련문의: (714)61403666, E-mail: igm21@gmail.com
8. 커리큘럼: GMS정신과 정체성, 세계선교동향, 21C 선교전략, 건강한 선교, 선교역사, 선교와 제자도, 타문화권 이해, 미션 플랜팅, 선교사 생활과 사역, 선교사 스트레스 관리, 선교사 후원개발, 출구전략, 팀사역 원리,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선교사 가정생활, 선교신학 기초, 선교사와 설교개발, 선교와 전도, 선교와 복음 등
9. 훈련 대상: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목사 선교사, 현장 선교사
10. 개강예배 및 수료예배-GMS 미주 OMTC훈련원
11. GMS선교사 임명식-GMS 미주 OMTC이사회
12. 2월13일 오후 2시까지 훈련장소로 도착하셔야 합니다.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복음, '삶에서 열방으로' (마5:14)

2017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에 온 성도들의 기쁨과 일터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분을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교회의 표어는 '복음, 삶에서 열방으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기성세대와 다음세대(한어권과 영어권)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2017년은 이웃 사랑의 열

장선에서 "복음, '삶에서 열방으로'"라는 주제를 세우고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5: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야 그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빛은 길 안내를 해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인 LA/

OC 지역 커뮤니티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또한 우리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 다양한 성경공부와 훈련 그리고 모든 사역들의 초점을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 특별 집회를 준비하여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각인시키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을 전도/선교 아웃리치로 마무리함으로써, 훈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천들로 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사영리, 다리에화, 전도폭발 등등)을 강화하고, 각 연령과 대상에 맞는 맞춤 전도를 개발하는 등등, 전도와 선교 사역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힘을 것입니다. 셋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전도는 한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곳 LA 지역교회의 수가 공식은 50만이고, 비공식은 70-80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불 건너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

가 바로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유람선 모드에서 벗어나 구조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한 사람,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길 기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삶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푸/른/초/장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 교회 원로)

돈키호테의 글 중에 "미쳐서 살다가 제 정신으로 죽다"는 문장은 그의 삶을 기가 막히게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미쳐서 살다가 미친 그대로 순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 걸고 밤낮없이 복음증거에 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중독이요 복된 마취요 가난뱅이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기쁨보다 더한 사건이요 대대박이요 기적이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성령충만

전히 빠지고 사로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변함없이 사나 죽으나 미친 대로 살다가 미친 그대로 죽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적인 작품도, 상상 못할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거창한 광고에 속아 두꺼운

크리스천은 밑줄 그을 내용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자기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이 읽혀지는 시 중에는 긴 이야기나, 삼라만상을 짧은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깊은 생각과 감성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룻밤에 자란 콩나물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삼십 한번해서 평평 솟아나는 물이 생수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공사도 쉽고 시간도 돈 투자도 적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3년 현장 사역을 위해 30

작이 아닌 미친 그대로 복음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보이는 현세적인 복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 복음에는 심령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영적인 영원한 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을 약속받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행복할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복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깨닫게 하

다. 그래서 오른팔의 마비증세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의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15년간 약 3천 목회자들에게 자비함으로 문서선교, 목회 자료를 제공했고, 60여 개국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도 수년간 발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부친은 죽을병에서 전도 받아 고침 받고 오직 예수, 오직 목사님, 오직 교회, 오직 순종, 오직 기도 밖에 모르며 92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담임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자신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두 번 부르시고, 목사님 앞에 천국을 가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다가 미친 그대로 죽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미친 그대로 죽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의 표현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적인 열정을 쏟아 붓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주어진 일에 그 어떤 분야이던, 그 일에 완전히 몰입되고 거기에 빠져 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이아가 되려면 그 일에 전념하고 빠져 미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미쳤다는 것은 만이아가 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술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부터는 예수에 빠져 복음증거에 빠져 오직 그 한 가지 사명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만큼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생

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 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친 자이지만 미칠 바에야 제대로 미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작가가 되면 화가가 되면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그 속 목적, 그 중심목표에 미쳤으면 합니다. 잠깐 미치는 것은 발작이지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분에 좌우된 사비 충성이나 헌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에 은혜에 사랑에 완

책 두 권(상하권)을 상당한 가격에 카드구매를 했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광고 문구도 호객 당할 문장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을 다 잃어도 밑줄 그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내용이 내가 볼 때는 그렇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독특한 시각이나 표현, 또는 뜨겁게 공감대를 일으키는 내용도 내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돈이 아까워 하권을 또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지루하기만 했지 마 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드디어 밑줄 그을 내용이 딱 한 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책값은 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자라면, 적어도

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 지도자로 쓰시려고 80년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은혜는 받았지만 잠깐 미치고 제 정신이 돌아와 사역을 중단하고 15년이 흘러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신학교 4학년에 복학하여 33년의 사역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미치지 못해 제 정신만 돌아오면 하기 힘들고 때로는 살기도 하지만, 미치면 생명 걸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제가 계속 문서선교 차원에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지만, 미치지 아니하면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미치고 싶고 발

고, 불완전한 복에서 완전한 복을 믿으며 살게 하고, 일시적인 복에서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 반지를 낀 자는 구리 반지를 낀 자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마치 금 100kg을 지고 가는 것과 돌 100kg의 무게는 같은데, 금 100kg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같이 편안한 행복보다 고단한 행복을 체험하는 것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미침은 행복 중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시간 책상에 앉아 글만 써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깨달음과 생각을 주시는 대로 정신없이 써내려 가다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빠져버린 것입니

여러분, 저는 책상 위에 펜대를 잡은 채,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부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는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다하므로,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길이길이 남을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편 볼은 곧 식어집니다. 내 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은 불은 기름만 보충하면 계속 불어 있습니다. 편 불은 전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은 불은, 작은 불이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불어 있어야 내 불이고, 전달도 가능합니다. 남의 간증을 전달하는 것보다, 자신의 간증이 더 확신이 넘칩니다. 카피, 모방보다, 내 가슴에 불은 불을 전달합니다. (5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현장에서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5. 입맛에 맞는 위로-동남젓 현상

사막 광야 같은 이민생활, 풍랑 많은 인생의 밤에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실 주님을 만났는가?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상황설명의 단답을 말한다. '나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살아 있음의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라고 말한다. 잔뜩 고통과 절망에 짓눌린 채로 '아프다'고 말하며 그 아픔에 대한 위로만을 찾아 피하기에 급급함을 본다. 삶속에 고통의 풍랑이 있을 지라도, 이를 섬기 가운데 허용하시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대해서는 지극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위로 쏟아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 철저한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 생명을 얻어 기뻐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오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이다.

을 보게 된다. 아마 조금 더 편리주의가 진행 되면 후에는 예배하는 처소도 필요없다는 예배당무용론에 도달할 것이다. 극단의 예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예배당에서 유행가 가수의 쇼가 펼쳐지든지, 술과 재떨이를 두고 예배하는 교회도 생기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예 술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들려지는 말로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는 이미 초신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당 한쪽에 재떨이를 두었다고 하니,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가?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

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말한다. 적당히 섞여 살아라'라고 말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씀대로 지키자고 하면, 율법적이라고 말한다. 그 내면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은 편리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편리하고 편한 것만이 발전과 성숙은 아닌 것이다.

맺음말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을 의미한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예배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개혁의 최종적인 목적도 온전한 예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앞으로 세계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피할 수 없는 영적 대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무슬림 정도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슬람이 현재 세계 인구의 몇%가 되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 교세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가디나에서 Hae Lee

A: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예상합동측 이슬람 대책위원회에서 출간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이란 책에 의하면 "이슬람은 1930년도에 전세계 이슬람 인구는 2억3백만 명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이슬람 인구가 세계의 15%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는 20%로 5%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의 이슬람 인구는 23.2%가 이슬람 인구이다. 아시아에서 이슬람 인구는 1970년 720만명에서 1990년 7억5600만명으로 성장하였고 아프리카 무슬림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1.32%인 3억2천410만 명"이라고 나와있다. 이슬람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산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별

이슬람 급성장 원인은 다산, 결혼, 개종

설교를 근거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독신주의를 금합니다. 꾸란은 무슬림 여성의 독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꾸란24:32). 따라서 무슬림 여성은 모두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한국의 자녀출산율은 겨우 1.1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이슬람의 성장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생물학적 인구 성장입니다.

둘째가 결혼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지만 무슬림 남성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이 과거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는데 오늘날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무슬림 남성들이 기독교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슬람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셋째 개종에 의한 증가입니다. 유럽에 이슬람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많은 젊은이를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력을 세우는데 노동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과 함께 이민자들이 중동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년에 4000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탈리아는 5만명이 개종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종자들의 1/4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는 이슬람의 공격적인 선교, 단순하고 쉬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비하면 그 교리가 단순하고 의무를 감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에 의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청소년들은 한부모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형제애를 무슬림 공동체에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거룩하게 미친 자, 영적으로 미친 자, 복음에 미친 자, 사명에 미친 자, 전도에 미친 자의 고백이요, 외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똥)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예수 모르면 똥보다 못하다. 이스라엘 선민이라도 하나님 잘못 믿으면 똥이다. 베냐민 지파, 족보 자랑하고 뽐내도 예수 안 믿으면 똥이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도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똥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도 형식적으로 믿으면 똥이다. 율법적으로 완전해도 복음 모르면 똥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예수가 너무 너무 좋아 다른 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친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미친 자는 세상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준비 중에 상품권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어머니 따라 비대한 미친 딸이 따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환자 같았습니까. 그런데 큰 빵봉지 하나를 들고 정신없이 먹으며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어머니가 호통을 쳐도, 의자에 앉아 있으라 해도, 자기 엄마만 졸졸 따라 다니면서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따라가면서 먹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를, 아!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도 없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에만 열중하듯이, 예수에 미

“교회를 위한 운동-교회와 예배의 회복”(하)



전남수 목사
(알찬사 제자들교회)

입맛에 맞는 위로, 동남젓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회개와 책망있는 예배 신앙편리주의 극복 거룩한 부담감 갖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돼야

히 무디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욱 재촉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 인터넷 문명 속에서 동남젓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다.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유를 사 고파는 '동남젓'이 세간에 알려졌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모유를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는 일들이 엄마들에게서 생형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한층 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말씀의 진지한 배움 없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마구잡이로 설교를 선택하거나 다운 받아 듣는 설교동남 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회복이 일어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나를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젓과 같은 말씀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강단의 설교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정도 취할 수 있는 취사 선택지의 한 부분일 뿐이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무엇보다 간절한 반응이 일어나며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6. 죄의 회개와 책망이 있는 예배

(4면에서 계속)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22-24에 보면 그는 말씀에 사로 잡혔습니다. 성령에 사로 잡혔습니다. 은혜에 사로 잡혔습니다. 사명에 사로 잡혔습니다. 전도 환상에, 생명 구원에, 복음 전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참았습니다. 역경도 이겼습니다. 장애도 극복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눈물로 전도하고, 교회가 말씀위에 든든히 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행 20:19-31).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빠져 (미쳐)버렸습니다(행 26:24-29). 그는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에 생명(미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 부활 복음 증거에 도취되어(미쳐서, 사명에 미쳐서, 생명 구원에 미쳐서, 바로 가르치는데 미쳐

회개가 회복과 축복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할 때,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 하듯이 회개 없는 예배, 감정의 기쁨을 유도하는 예배가 많음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한 고민과 회개 없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감심을 기억해야 한다. 회개의 상한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한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다.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돌아키미 없는 예배, 아무런 열매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게 된다.

7. 신앙의 편리주의 현상-세속화

일주일에만 한번만 교회가면 되지 않느냐,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라는 편리주의가 일 반화되어 가는 것을 본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러지는 것인데, 사랑의 시간 때우기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지는 예배가운데 은혜가 있는 법인데, 주일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정하신 날과 시간인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본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가 범람한다. 사모하지 않으니 은혜가 없다. 결국, 은혜 받지 못하는 자신을 타당화 시키기 위해 교회의 다른 제 문제들을 핑계하거나, 과거에 나도 은혜를 입을 때가 있었다며 추억의 신앙으로 속히 전향하는 것

은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예배 성도들은 부담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신앙생활,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마음이 축축해서 드러지는 시간이다. 예배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죄성을 거스르며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을 조명하며 철저히 말씀에 초점 맞추어 겔36:22-25의 말씀처럼, 영혼의 불순물이 씻겨 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영혼이 수술 받는 구별된 시간이다. 불편할지라도 남부노소를 불문하고 예배의 구별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히 구별된 복장도 필요하다. 땀스홀에 왔는지 예배당에 왔는지 구별되지 않거나, 극장에서 영화보는 것인지 어떤 지 모를 자세로는 도저히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십일조나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님을 향해 율법적이라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음을 본다.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주일도 마음대로 바꾸고, 교회예배당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선각자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저것 편리하게 다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편리하게 팬티바람으로 집에 앉아서 다 할 것이다. 망하는 세대, 타락하는 세대의 모습이다.

이 악한 세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편하게 믿어라. 뭘 그렇게 별

의 회복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하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한다. 그 섬기는 교회가운데 담임 목회자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혼에 증거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의 뉘얼이 분명한 복된 신앙생활의 청경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러야 한다. 감정주의 신앙을 벗어나 오직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많은 기계문명 속에서 입맛에 맞는 위로를 던져주는 동남젓 현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진실로 회개와 책망이 드러나는 예배, 신앙의 편리주의를 극복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삶도 무너지는 것이다. 참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davidnjeon@yahoo.com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매인 바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사랑에 감동 되고, 도취된 충성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고후6:3-7에 고백하기를 복음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한탄, 핍박, 궁핍, 매 맞음, 감함, 분주함, 수고, 자지 못함, 배고픔, 육에 감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후 11:23-27에 보면,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스펙은 하이클래스입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 선교와 전도에 미쳐서, 사명에 미쳐서, 생명 구원에 미쳐서, 바로 가르치는데 미쳐

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육에 여러 번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9대시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실신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23-24).

세 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은 가장 고통당하게 제작한 고문용 도구입니다(25). 한번은 돌로 맞았습니다(25). 바다에 파선으로 죽을 고비를 세 번 당했습니다(26).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26).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도시와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게 하고, 주리고 목마름을 당했습니다. 굶고 춥고 헛벗었습니다(27).

여러분, 이것 인간적으로 볼 때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계속 반복하기를 "고난은 은혜"라고 외칩니다.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강하게 연명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칩니다. 교훈합니다.

제 정신으로는 하나님 귀에 안 들 어오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칩니다. 고 후6:8-10에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는 자다.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상 받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멋지게 미쳐서, 멋지게 삽시다. 어차피 미쳐야 사는 세상, 예수 때문에 미치는 것 가장 잘 미치는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는 예수가 잘 믿기 힘들어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오면 아까워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하기 싫어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싫증나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쉬고 싶어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방탕하고 싶어요. 제 정신이 돌아오면 화나요. 신경질 나요. 힘듭니다. 견디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나 용서해줄까? 삼세번도 힘든데,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 댈까?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실리를 가줄까? 어떻게 고가의 옥합을 깨뜨릴까? 정 그렇다면 장학제단에 기부하지. 다시 강조합니다. 제대로 미쳐야 살맛 납니다. 제대로 미쳐야 살아남습니다. 제대로 미쳐야 담대합니다. 세 계 여론이 "한국사람 미쳤네" 할 때 가장 고소 성장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야 마지막 때 믿음 지키고, 물질만능 시대적 흐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kkiwon2002@hanmail.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힌두스타니(HINDUSTANI, 힌두스탄족)



인도는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마

일당 762명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의 강변 평야지역, 데칸고원, 동서부 가즈산맥 등 네 개의 주요지역으로 나뉘질 수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대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93만5천7백명의 힌두스타니족의 명확한 거주지, 생활양식 또는 문화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캐리비안 힌디어(Caribbean Hindi)로도 알려져 있는 그들의 인도-아리안 어족의 언어는 수리남, 가이아나, 트리니다드 그리고 토바고 등지에서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약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몇 가지 유형의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수확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토는 매우 작고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가축, 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그들 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고기로 먹기보다는 대부분 짐을 나르는 짐승들로만 쓴다.

인도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포함해 많은 힌두교 제도들은 세속적인 인도사회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카스트(caste)"라는 단어는 본래 종족, 씨족, 동족을 의미한다. 인도사회는 일반적으로 같은 동족, 같은 계급 내에서만 결혼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로 나

뉘져 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인도 사회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힌두스타니인들을 카스트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그들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충분치 않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효과적인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독립 이후 인도정부는 국민 건강문제에 매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의학, 공중위생, 영양보급, 위생상태 등의 분야는 여전히 변변치 못하다. 가뭄으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영양실조와 기아에 끊임없

이 허덕이고 있다.

신앙

인도인의 약 12%가 힌두교이며 그들 대부분은 카시미르 지방의 북부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독립 이후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지역으로 처음 전파된 이슬람교는 가장 인상적인 건축양식의 일부를 인도에 제공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예의 하나가 인도 북부의 아그라(Agra)에 위치한 세계적으로도 명성있는 "타지마할"이다.

힌두스타니족은 55%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가 지배적이며 나머지 중 40%는 힌두교도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오주(five pillars)에 충실하고 있다. 다섯 가지 의무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라고 증거하는 것, 매일 다섯 번 기도하기,

관대한 자선을 베풀기, 라마단의 성스러운 달 동안 금식하는 것, 가능한 한 메카순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힌두스타니 이슬람교도들은 "하즈(Haj)" 즉, 순례를 위해 메카로 여행하거나 성지 참배를 드릴 형편이 못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이 힌두스타니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도 하나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들의 결혼,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제자도에 관한 양육 자료가 필요하다. 인도의 힌두스타니인들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중보기도와 선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한국인 선교사 사상 첫 '제로 성장'

매년 증가해오던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가 처음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이사장 신동우 목사)는 9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까지 전 세계 172개국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의 수가 2만720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과 동일한 수치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사역 국가는 1개국 증가했다. 개 교회와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제외됐다.



KWMA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는 2013년 2만5745명, 2014년 2만6677명, 2015년 2만720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증가폭이 932명, 2015년 528명으로 점차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0명으로 떨어진 것이다.

파송 현황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였다. 아시아는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의 영향이 강한 곳으로 미전도지역이 많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어 전체 53%의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에는 교회개척(1만4096명)과 제자훈련(9533명)이 가장 많았고 복지·개발(2071명) 분야도 많아졌다. 이어 캠퍼스(2031명) 교육(1667명) 의료(689명) 어린이·청소년(622명) 문화·스포츠(6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황 조사는 KWMA 회원과 비회원 등 총 229개 단체 소속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선교계는 지역교회의 선교 관심 축소와 젊은 세대(20~30대) 선교사 지원율 하락, 은퇴 선교사 증가 등의 현상이 이어져 전체 선교사 파송 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번 '제로 성장'에는 이 같은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WMA는 그러나 이번 결과가 비판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파송 선교사의 수가 정체된 데는 선교단체의 '허수 빼기'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KWMA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신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요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은 꾸준히 두 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며 "그러나 단체들이 선교사 선발을 엄격하게 하는 등 '자기 정화'를 함으로써 발생한 감소폭이 증가폭과 맞먹었기에 결과적으로 2015년과 똑같은 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총 23개 단체가 허수 정리 등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았다. 이들 단체가 자체 정리한 선교사만 411명에 이른다. 정리 이유는 선교활동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와 병가 등의 개인적인 사유, 단기선교사(2-3년) 정리 등을 꼽았다. 이렇듯 올라와 있는 선교사들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교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많은' 선교사보다 '좋은' 선교사를 보내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교사 파송 현황은 성숙한 선교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트럼프 취임식, 정통 복음주의 예배로 치러진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개신교 정통 복음주의로 채워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빌리 그레이엄전도협회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트럼프 당선인을 전도한 여성 지도자 폴라 화이트 목사, 히스패닉계 기독교 지도자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등 복음주의권 인사들이 축복기도를 맡기 때문이다.



미국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이들 기독교 지도자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성경 봉독과 대통령을 위한 축복 기도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그 자체가 개신교 예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식 당일 오전 9시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성 요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 첫 일정이 장식된다.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관례화됐다. 취임식장에 도착한 신임 대통령은 전국으로 중계되는 TV 등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왼손을 성경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 취임선서를 한다. 선서 마지막에는 '신이여 굿여 살피소서(So help me God)'라고 간구하는 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이다. 취임식 마무리도 교회 지도자들의 축복기도로 채워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전통적이며 복음주의적 색채가 강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 당선인보다 공화당 출신 당선인의 취임식이 복음주의 색채가 더 강했다. 민주당은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진보성향인 반면 공화당은 반성경적인 낙태와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단과 신자들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2009년 제43대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취임식 예배와 축복기도를 새들백교회 담임인 릭 워렌 목사에게 맡겼다. 베스트셀러 '목적'이라는 삶의 저자인 워렌 목사는 축복기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주기도문만 낭독해 논란을 일으켰다.

복음주의 교단들은 일제히 워렌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타종교를 포 포함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취임식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하는 목사는?

프랭클린 그레이엄(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대표), 폴라 화이트(여폴로리다 뉴데일센터), 사무엘 로드리게스(NHCLC 회장) 목사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개신교 대표로 참석해 기도한다.



가톨릭과 유대교 등 종교계 초청 인사 6명 가운데 포함된 이들 목사는 모두 저명한 보수적 복음주의자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대선기간 내내 대규모 순회기도집회인 '디시온 아메리카(Decision America)'를 미국 전역에서 개최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0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도 기도를 맡았다.

TV 복음전도자로 유명한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를 전도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개신교 자문위원인 제임스 돕슨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TV 전도사 폴라 화이트가 트럼프를 예수께로 인도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는 최대 히스패닉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전미 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NHCLC)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취임식 참석에 대해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루터교회, 결국 국교 지위 박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부터 개신교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노르웨이 루터교회(NLC·Norway's Lutheran Church)가 정부로부터 국교(國敎)의 지위



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온라인 기독교매체인 에큐메니컬뉴스 등은 NLC가 신년 첫해 날부터 국교가 아닌 독립법인이 됐다고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노르웨이 의회가 종교간 형평성을 명목으로 국교 금지 결의안(2008년)을 채택하고 헌법 개정(2012년), NLC 독립법인화 법안(2016년)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NLC 독립법인화 법안에는 '루터교회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종교(public religion)로 남을 것'이라는 현행법 문구가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1250명에 달하는 루터교 목사 및 지역교구장, 교회 소속 직원 등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NLC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유지된다.

노르웨이의 정교 분리는 1537년 덴마크 국왕이 덴마크령 노르웨이에 직령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루터교회)를 설립한지 480년 만이다. 181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가 헌법에 루터교회를 국교로 명시한 시점으로 따지면 203년 만이다.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루터교회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노르웨이 정부의 조치는 가히 충격적이라는 게 기독교매체들의 평가다. '유럽=기독교 국가'라는 등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편에선 이번 조치가 노르웨이를 넘어 유럽 각국의 개신교단에 던지는 각성의 메시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로부터 '준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아온 유럽 개신교 목회자들이 영성 강화와 적극적 선교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해석이다. 실제로 유럽 교단들은 정부 지원에 안주해 변화하는 세계와 세대, 세계관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교세가 점점 더 줄어드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심수년 전부터 개신교 외 다른 종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12년 이후 지난 4년간 무슬림은 무려 32%, 가톨릭 신자는 42% 급증했다.

노르웨이 인구의 74%(약 380만명)가 루터교 신자지만, 정기적인 교회 출석률은 5% 미만으로 세계 최 저 수준이다. 지난해 9월엔 온라인 교인 등록시스템을 적용하자 탈퇴 신자가 4만명이 나오기도 했다. 동성결혼과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등 NLC의 잘못된 신학노선도 교회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다.

2016년, 6분에 1명꼴 기독교인 박해로 숨져

전 세계에서 분쟁과 종교 갈등으로 지난해 9만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 6분마다 1명의 기독교인이 생명을 잃은 수치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신종교연구센터(CESNUR) 대표 매시모 인트로비그네는 지난 1일 "전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5억-6억 명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부설 세계기독교연구센터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CESNUR에 따르면 희생자 9만 명 중 70%(6만 3000명)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사망자들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 하거나 방어하지 않았고 이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 원인이라고 CESNUR는 전했다.

나머지 30%(2만7000명)는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독재 정부에 의한 박해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슬람국가(IS)나 보코하람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나 납치를 자행했으며 마을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김정정은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있다. 공개된 기독교인 사망자 수는 2015년 1만5000명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수치라고 CESNUR는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 박해 관련 전문단체인 오픈도어가 매년 집계하고 있는 수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픈도어가 주로 신앙 때문에 희생당한 순교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CESNUR는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내전이나 전쟁 등 다양한 갈등 현상

에서 사망한 기독교인까지 포함했다. 기독교인 범주도 개신교인을 비롯해 정교회 교인, 로마가톨릭 신자들을 포괄했다.

인트로비그네 대표는 IS와 관련해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대상이 반드시 기독교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IS의 테러 대상에는 같은 무슬림인 시아파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아시아의 경우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사망자가 기독교인이나 무슬림 모두 비슷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관용이 사라지고 혐오와 차별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NN, 소홀히 취급된 2016년 뉴스 소개

언론의 관심이 주로 몇몇 중요한 나라의 대형 사건에 쏠리다 보니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뉴스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27일 '올해 놓친 뉴스'를 몇 개 골라 소개했다.



①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청소: 불교국가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축출 작전으로 100명 가까이 숨졌고 2만여명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미얀마군은 헬기에서 총탄을 퍼붓고 여성들을 강간한 뒤 마을을 불태웠다.

현지 국영 언론은 로힝야족을 "제거해야 할, 혐오스러운 인간 버릇"이라고 표현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현재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는 학살 사실을 부인하고 침묵했다.

②'보스니아의 도살자' 단죄: 지난 3월 국제유고전 법재판소(ICTY)는 보스니아 내전(1992-95년) 때 인종 청소를 주도한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라지치가 1995년 스레브리니차에서 무슬림 8000여명의 학살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2차대전 전범 재판 이후 가장 중요한 전범 재판으로 여겨진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은 한국 출신 권오연 ICTY 부소장이 맡았다.

③흑인에 가려진 히스패닉 총격 사망: 올 한 해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히스패닉 155명이 살해됐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은 뉴스만 집중적으로 다뤘다.

④미국서 '기후변화 난민' 발생: 루이지애나주의 작은 섬 '천 찰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1955년 이후 토지의 98%가 사라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섬 주민 전원을 이주시키기로 했다.

(1면에서 계속)

미국내 교단별 상황을 보면 장로교(개혁교단 포함)가 1,500교회로 약 46%를 차지했으며 19%를 차지한 침례교(680)가 2위, 3위는 감리교 477교회(13%), 4위는 하나님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250교회(7%)로 집계됐으며 나사렛 성결교단이 117교회(5%)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복음주의, 그리스도교회, 초교파, 교단을 명시하지 않은 교회도 다수 있었으며, 또 무소속은 239교회, 독립교단도 167교회나 됐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예년과 동일하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430교회로 나타났으며 2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미국교단인 PCUSA가 차지했다(320). 3위는 해외한인장로회(230), 4위는 미국교단인 PCA(167)로 기록됐다.

또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87교회와 37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선교회 교단인 C&MA도 80교회로 나타났다.

'2017 세계한인주소목록'에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목록에는 총 6,048개의 리스트가 수록됐다. '2017 세계한인교회주소목록'은 1월 중순부터 미국 전역에 배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배포되고 있다. 주소목록을 메일로 받기 원하면 우송료(8달러)를 LA 사무실(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로 보내면 된다.

(유원정 기자)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8. 임형주

임형주(林衡柱)는 1867년 5월 5일에 평남 용강군 양반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아호가 근당(謹堂)이다. 4살에 천자문을 읽 정도의 조숙했다. 그는 14세에 한학의 사서삼경과 심필사략을 통독한 신동이었고, 소년 시절 중국 고서에 정통하였다.

17세에 과거에 급제한 임형주는

유지들이 모여 들게 된다. 임형주가 평양 독립협회 간부가 되면서 민지계발과 부국강병 그리고 서정 일선에 힘을 모았다. 그런데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으로 피신하다 돌아온 임형주는 직간접으로 대한제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도산 안창호는 임형주와 밀접한 관계다. 안창호는 임형주보다 11세가 적다. 그들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친척 간이자 후원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안창호는 집이 가난하여 한때 임형주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전해진다. 임형주가 이석관의 장녀 이해관과 안창호의



아래 중앙이 임형주, 아래 우측은 안창호

향에 선돌감리교회를 세우고 민권 사상 보급과 전도사업에 열중했다는 기록도 있다. 1899년 이후 하와이로 이주하던 1904년 사이가 될 것이다.

하와이 지방 전도사

임형주는 1903년 진남포 인력개발회사의 직원인 계동원이 된다. 그는 평양 지역 청년들의 하와이 노동 이민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 이민을 주선하던 임형주가

과 함께 '지방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이때가 그가 37세가 되던 해다.

임형주가 어디로 파송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1904년 말 교인명단에 카우아이 섬에 7개 교회, 오아후 섬에 5개 교회 그리고 마우이 섬에 2개 교회 등의 3개 섬에 14개의 교회와 400명의 교인이 있었다. 임형주는 이들 14개 지역 중 몇 지역을 두루 다니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심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가던 귀국선에서 손흥조를 만나고, 손흥조로부터 안식교의 재림 교리를 듣고 안식교로 개종한다. 이로써 임형주는 일본인 안식교 전도사 쿠니야 히데로부터 안식교도가 된 손흥조와 이응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안식교도가 된다.

임형주가 재림 교리를 듣고 안식교도가 되고 그의 이름을 임기반(林基盤)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아 소환령으로 인해 귀국길에 오른 그의 심적 상황이 엄중했음을 알게 된다. 기반이란 베드라라는 뜻이다.

이민선으로 일본에 왔던 이응현은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하와이로 갔지만 손흥조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임형주는 손흥조와 함께 귀국한 후 1903년에 근무했던 인력개발회사가 있던 진남포로 가서 한국 안식교의 기초를 놓는데 크게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유로 고향 지인들 대부분이 안식교에 입교한다. 이후 5년 동안 안식교의 놀라운 성장은 임형주의 역할로 보면 된다.

그런데 안식교 선교본부 서울로 이동하려는 계획에 임형주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안식교단의 모든 사업에서 결별한다.

독립운동

호와 김사익 등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가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북경에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청년 단원의 모집을 꾀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1920년 3월 봉천에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진 임형주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대구 범법에서 기소중지 불기소의 주문을 받았던 만큼 독립운동가로서의 임형주가 일제의 유종의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중의일본은 임형주가 1927년 8월 봉천조선인정년회 내에 노소동맹단을 발기할 때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일본은 본 발기 모임에서 임형주가 축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건국훈장 애국장

자녀들이 유학 간 일본을 방문하던 중 임형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932년 6월 5일에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2000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55돌을 맞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57명을 포상하기로 했을 때 임형주에게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3면에서 계속)

그러한 현재적 의미에 대한 고려는 역사적인 기념의 참된 과제이고, 이것은 현대 서양에서 문화 정체성의 보존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여가 된다.

오늘날 서양 문화의 유지와 계속된 발전은 다음 두 가지 특징, 즉 기독교의 공통성과 교파들의 개별성(교파의 차이와 교회 일차적인 공통점)이 공존할 때만이 가능하다.

종교적인 세계는 심층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양 사회는 아직 다문화와 다종교로 각인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종파들의 대립과 상호공존을 통해 얻어진 통찰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

종교적인 신념과 세계관의 다원성에 직면하여, 기독교 전체에 해당하는 특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각각의 특색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기독교세계'라는 세계적, 전체적 관점 속에는,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동일시되고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한 갈망이 표현될 수 있다.

결국 종교개혁 500주년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적 사건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

17세에 과거급제 했으나 사회개혁에 큰 관심, 안창호와 가까워 하와이서 감리교전도사로 잠시 재직, 안식교로 개종 5년간 활동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중국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



임형주

진사가 되어 고향에 내려왔다. 진사에 급제한 사람들의 지나친 주연과 매관매직을 본 임형주는 문벌타파를 주장하는 등 사회 개혁에 한 발을 내디디며 스스로 양반의 복을 벗기에 이른다.

실용적인 평민 의복으로 갈아입은 임형주는 상투를 자르고 천부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타파를 외치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의 사회 개혁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의 질책으로 임형주는 27세가 되던 1894년 고향을 떠나 진남포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임형주는 1894년 청일전쟁이 평양에서 교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남의 나라의 전쟁터가 된 조국의 수치를 보고 국력 배양에 앞장서게 된다.

임형주가 1897년 독립협회에서 시작된 만민공동회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임형주의 사망방에도 이에 동조한 지역 청년들과 뜻있는

백년기약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석관은 이후 임형주의 전도로 안식교로 개종한다.

감리교 전도사

임형주는 감리교에 입교한다. 그가 32세가 되던 1899년에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하와이 그리스도감리교회에 적혀 있다. 그런데 위의 교회에는 그의 아들 임태식이 미국 북감리교 내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A. 노블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있는 만큼 임형주도 노블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임형주가 세례를 받았다는 1899년 청일전쟁 후가 된다. 청일전쟁은 1894년 8월부터 1895년 4월에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그가 1899년에 세례를 받았다면 이러한 전쟁을 겪은 후다.

이후 임형주는 전도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비를 털어 고

하와이로 이주한다. 이민자들의 지도를 위해서였다. 임형주(Im Hyang Choo)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9살 난 아들 임태식(Im Tai Sik)만 데리고 선박 아메리카 마루에 승선했다. 그들은 1904년 1월 9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임형주가 37세가 되던 해다.

하와이에 도착한 임형주는 '한인 감리교선교회'에 가입했을 것이다. 본 선교회는 1903년 11월에 안정수와 우병길이 조직하였다. 임형주가 본 선교회에 가입하였을 때는 이들 안정수와 우병길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임형주가 타 지역으로 노동자로 가지 않고 호놀룰루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1904년 2월 이후 흥승하 전도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임형주가 참석하였을 것이다. 본 선교회는 그 해 4월 '한인 기독교감리교회'로 승격되었으니 임형주가 이 승격의 증인이 되기도 한다.

1904년 5월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 감리교감독 존 W. 와드만 목사는 임형주를 이교담과 우병길

과 함께 '지방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이때가 그가 37세가 되던 해다.

하와이 신민회

임형주는 1903년 흥승하 등에 의해 조직된 신민회에 가입했다. 신민회는 동족단결, 민지계발, 국정쇄신 등의 강령을 내세우고 구국정신 고취와 일제침략행동 성토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신민회는 계파갈등으로 1년 만에 해산될 때까지 활동했을 것이다.

안식교

임형주가 하와이 지방 전도사로 임명된 1904년 5월에 아들 임태식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임형주가 소환령에 의해서 귀국길에 올랐고 구속령이 떨어졌다고 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임형주는 일본 고베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ao@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	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evangel.org	뉴욕모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티모티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oc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d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성경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주일스무새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718)75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org/	예시랑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호로기도회: 아침 7:40 월, 화, 목, 금, 토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1, 2, 3, 부스페나시 열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mkr@hot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8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성경도 신앙 (23)

청교도들의 예배 (1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성들의 모든 원수를 이기신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는 말씀이다. 또 그분의 머리와 흰 털은 그분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14절)라는 표현은 그분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데 그분의 눈에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불꽃은 어둠을 흩어 버리고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관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다.

2) 공적인 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많이 나타난다
공예배에서 주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 “무릇 내 이름을 기뻐하게 하는 곳에서 네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창20:24). 공예배의 지점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경배되는 곳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겠다. 빈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

씀이다. 마치 범개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영광이 떠났다고 외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 공예배 의식이 바로 그 징조이다. 하나님은 공예배 의식을 사용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예배에 함께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하심은 사적 예배보다 공예배 시간에 더 많이 드러나며, 더 많이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가 공예배를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주님께 불쾌감을 주며, 주님께 일종의 공격적인 태

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능력을 볼 것이다(고전13:12).
다윗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많은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 공예배 의식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것 이상의 것을 공예배 시간에 알게 되기를 사모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27:4)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공예배

공예배에 주님 임재 더 많고 영적 힘과 성숙, 위로와 신선함도 더 많아 요한계시록 1장 13-16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모습 보여주서

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행복을 말씀하십시오 공예배의 효과를 암시하고 있다.
주님이 지속적인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난다. 주님의 친밀하신 임재하심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라는 주님 자신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있거나 함께 있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셨다. 바로 여기에 공예배의 친밀감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라고 말씀한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걸으시고 함께 거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레위기 26장 2절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 장막에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라는 주님의 약속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신다는 말

도를 보이는 것과도 같다. 주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지만, 성도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예배에 참여할 때, 거기에 모든 은혜의 약속들이 다 집결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은혜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마치 큰 강을 이루는 것과도 같다.
이사야 25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뻐하신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뻐하신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라고 표현하신다. 공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 예배보다 공예배를 더 선호해야 한다.
3) 공예배에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은 공예배에서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다른 나라에게는 주지 아니한 평강과 사랑과 생명의 환상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예배 처소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더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메마르고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63:1-2)라고 표현했다.
4)공예배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 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것이 공예배에 드러나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13-1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13절), 그것은 제사장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모든 성도의 위로와 즐거움의 샘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을 상징하고 있다. 가슴에는 금 띠를 띠셨는데(13절) 이것은 정복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

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 오고”(16절)라는 말씀은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을 상징한다(히4:12,13). 심령을 관통하고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모든 반대에도 그리스도는 계속 전진하실 것이며 정복하고 또 승리하실 것이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과 같더라”(16절)라는 말씀은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난다.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다.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사모하는 이와 행복의 근원으로 비치는 것이다. 것처럼 명백한 현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지혜의 효과적인 출현하심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든 광채가 바로 공예배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공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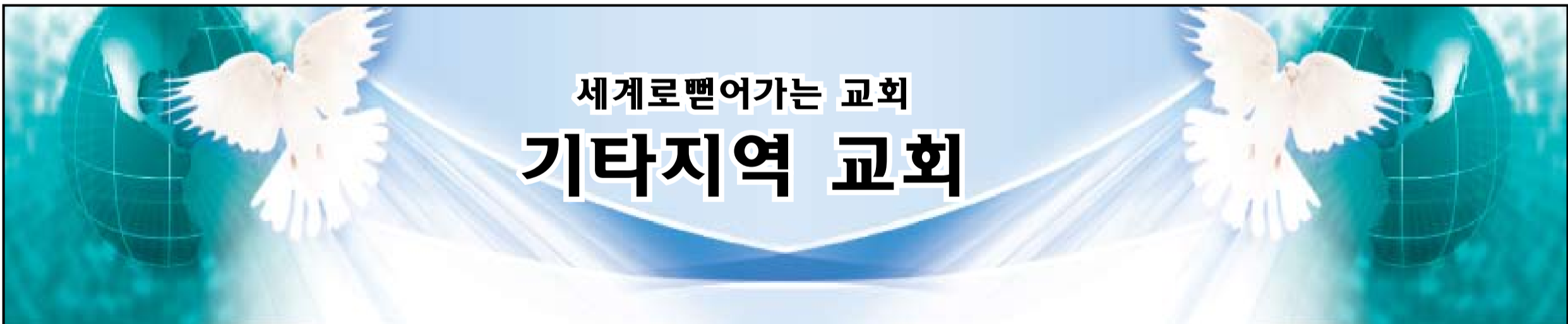
블러도 블러도 대답없는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야말로 자신의 입지만을 세워줘야 하는 자신의 종입니다. 인간됨을 버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그를 돌이켜 왕다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리도 참으시고 애쓰셨건만, 왕권의 집착으로 분주한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협을 막아주는 도구일 뿐이던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의 기회를 참으로 미꾸라지 빠지듯 자기 합리화를 너무도 잘하여 번번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금하여 쓸어버린 신성한 자를 마지막 카드로 긁어보는데...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죽기로 싸웠던들 그 정도로 실망했겠는가? 최악의 소식에 완전히 혼이 다 달아나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보다 나은가요? 어려운 일을 코앞에 두면 정쟁이를 찾는 집사, 권사들로 장사진이란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정쟁이식으로 남용하는 변질된 은사자들의 횡포가 가능한 것은 사울처럼 답답하니 발길을 돌려 하나님을 달래 보겠다는 것은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블러도 블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도 오래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을 때 그럼 우린 어찌 해야하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을 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 자체가 그 대답입니다. 법적 썰질 말고 조용히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앉히고 정리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분요한 마음을 가라앉히면 분명코 회개할 부분들을 찾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뿌리 뽑아 주시려하나, 우리는 당장 아픈 증상만 없애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증상만 잠시 없어진다 해도 그 뿌리가 남아 있으면 문제는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니 증상만 살짝 살짝 없애주면 오히려 썩고 썩어 필경은 속수무책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 사울의 길을 가는 기록신앙, 종교의 영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즐비한가요? 교회 밖의 불신자보다 교회안의 불신자가 더 증 환자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노력은 결국 허사로 돌아감을 보며 우리의 수고와 향방 없이 쏘아대는 무모한 화살같이 되지는 않을가 두렵습니다. 작고 큰 모든 수고가 모두 주님의 이름에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금 정진 차려 마음을 추스려봅시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함보다는, 참모할 모양이 하나 없는 이 모든 시대로 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다윗의 일생처럼 살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제목이 크게 보여지는 은혜의 눈이 밝아지게 주님의 밝은 안경을 씌워주세요. 환경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크게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다윗의 길을 가는 이들이 마음에 활력 받고 주님의 심장이 크게 고동치며 주님으로 인해 죽고 사는 산 믿음 가운데 거하길 갈망합니다.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내도록 모든 사남게 부추기는 불순종의 가지들을 쳐버립니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성경공부반: 오전 10시 (한/영) 오전 11시 (영/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p>	<p>안다솔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부흥예배: 오후 11:15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s.org</p>	<p>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jejs.org</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422-0288, Fax: (915)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부흥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승훈 목사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함께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추운 겨울 날씨와 연말의 바쁜 일정들로 인해서 감기 몸살에 걸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옛날 한국에서는 감기 몸살에 걸리면 약국에서 조제해 주는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조제약들은 삼키기

힘들 정도로 쓴맛이 매우 강했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간신히 쓴 약을 삼키고 나면 입에서 한참동안 약의 쓴맛이 남는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꼭 털어버리고 가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마음의 쓴뿌리들이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들

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마음의 쓴뿌리들이 위험한 이유는 본능적으로 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김 마음의 쓴뿌리가 입으로 나와서 악한 말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할까봐 두려워하였다. 마음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악한 말을 내뱉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정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인되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자칫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대로 짓는 이중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쓴뿌리를 간직한 채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입의 재갈을 먹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

을 할 수가 없다. 즉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마음의 쓴뿌리가 입으로 올라와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침묵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사람의 죄 된 본성이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침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고민이다. 예수님은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2017년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꼭 염두 해두어야 할 일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다준 형제로 인하여 악한 감정과 함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칠

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해 동안 꼭 마음에 새겨야할 말씀 하나가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초절하고 목상하는 가운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말과 행동이 진리로부터 흐트러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 드리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원해본다.



OC 교협 신년하례예배 및 1월 월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26대 OC교협 신년하례예배 및 1월 월례회

제26대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신년하례예배 및 1월 월례회가 5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신현철 목사(분회 기획부회장)와 조형수 목사(분회 영성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회는 교협후원이사장 전주홍 장로, 영김 전65지구 하원의원, 유수연 사모(세리

토스 교육위원)가 축사를 했다. 이어 이호우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OC교협은 2017년 한해는 대외 행사중심에서 벗어나 교협산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찾아가 실질적인 목회사역의 도움을 기획하며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정기월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영 목사(분회 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박재만 목사(분회 행정부회장)가 기도를, 노상철 목사(부총무)가 성경봉독했으며 주일염 목사(베데스다대학교 교수)가 특송, 고승희 목사가 설교, 한기홍 목사가 신년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GBC미주복음방송은 최근 제기된 재정 및 사장 사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GBC "재정 의혹 해소, 모든 것이 정확?" 내부감사자료 지적사항 발견으로 의문점 남아

미주복음방송(GBC)은 최근 갑작스런 사장 사임과 재정문제 의혹에 관해 GBC 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GBC 공개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사장 사임으로 인해 한시적 사장대행으로 상근이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를 비롯, 임시이사장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이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진유철 목사(나선순복음교회) 등 4명의 이사들이 참여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 지난 12월 2일 실시했던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해명과 앞으로 GB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GBC는 미주복음방송 비상이사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2월 정기이사회에 이르기 전에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2월 정기이사회 이전에 모든 이사들은 비상체제로 돌입해 2017년 2월 중에 미주복음방송의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데 총력을 다 한다 △2월 정기 이사회까지 비상이사회가 방송국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며, 사장의 권한까지 비상이사회에 둔다 △2월 정기이사회에 이르는 동안 방송국에 파송하는 상근이사를 세워 인사, 행정, 재정을 관장하게 하며 이 상근이사는 비상이사회 이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상이사회의 활동은 새로

운 사장 및 이사장과 이사진이 선임됨으로 해제된다 △미주복음방송이 운영에 있어서 투명함, 그리고 방송의 질적 내용에 대한 발전을 위해 외부 평가를 받는다 등 결의사항으로 밝혔다. 또한, 설립자 임종희 목사가 은퇴 후 5년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결과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민종기 목사는 "3개월 전부터 지병이었던 당뇨와 방송국 이전 등의 과로로 인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장 임덕순 장로가 사임을 요청해와 사임 후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위해 임시이사회에 소집하고 지난 12월 2일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방송국 이전을 포함한 방송국 건물매매를 포함해 이제까지의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의된 감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다.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결과 재정적 의혹이 해소됐지만 의혹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GBC 방송사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희 목사는 "지난 이사회에서 감사기관으로 선임된 Cho & Kahng An Accountancy Corporation 감사보고 내용은 스테이션(Station) 구입에서 새 사육 구입과 수리 그리고 제반 방송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모든 것이 정확

하게 기록되었고 재정적 의혹이 없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이사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구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히 회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며 "내부감사에서는 계정항목의 분류에 대한 재고를 건의받았으며, 소액지불자금(Petty Cash)이 건당 50달러로 설정된 설정 기준을 30달러로 조정해 더욱 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BC의 감사내용이 재정적 의혹이 없다고 이사들이 설명과는 달리 내부 감사자료에 재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돼 GBC의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하게 됐다. 내부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입기록에 현금접수부터 영수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 중 실무적인 더블체크가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회계계정 분류에 대해 지출계정 분류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 비용분석이 어려움, 크레딧 카드 사용부분에서 식사비용과 점대비, 출장비의 상세 내용이 별도 첨부되었지만 IRS Audit 시 판공비 처리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 1991년 2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26년간 방송선교를 감당해 미주지역 방송선교의 상징적 매체가 된 GBC의 운영진들이 1달러의 후원금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화된 것으로 여겨져 재정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었다는 의혹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사장사임에 대해 "사장 임덕순 장로가 전격사임 함으로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재정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는 이사진들의 생각이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 기자회견이 GBC의 강력한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을 덮기 위해 급히 마련된 면회용 기자회견이란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새 사장 취임 후 GBC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준호 기자)



OC목사회 회원들이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목사회 신년하례회 예배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는 2017년 신년하례회 예

배를 '목회자의 영성회복'이라는 표현 3일 오전 11시 길베포교회(담임

백태현 목사)에서 열었다. 김익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부회장 김근수 목사와 흥덕주전도사가 찬송을 인도했으며 계한교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가 기도를, 송인 목사가 축사를 낭독했다. 이어 이관우 장로(OC평신도협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서기 이상호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관권섭 목사(CRC한인총회장)가 '다윗의 번성과 축복'(대상14:13-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동태 장로(OC한인회)와 김기동 목사(OC교협 이사장)가 축사했다. 이날예배는 이호우 목사(OC교협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OC한인목사회)



2016년 미주여성 미국서남지방회 교직자 송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여성 미국서남지방회 교직자 송년 감사예배

예수교미주성결교회(미주여성)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5시 남가주벨엘교회(담임 오병익목사)에서 2016년 미국서남지방회 교직자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송년감사예배는 지방회장 김영일 목사(성심과 나눔교회) 사회와 김제임 목사(위심포도원교회)의 대표기도, 오병익 목사(남가주벨엘교회)의 설교, 이용남 목

사(은혜세계선교회)의 광고, 그리고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익 목사는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히12:1-3)란 제목의 설교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의 경주인데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은 첫째, 실패와 실패의식, 과거의 성공의식, 죄책감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질 때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둘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셋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끝까지 가자. 그러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남가주벨엘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서경열 목사(멕시코선교회 선교사)가 산지에서 직접 잡은 생선들로 가득찬 풍성한 만찬 시간이 있었으며 이후 2부 순서로는 양용국 목사의 진행 속에 찬양 및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인사와 덕담의 시간, 풍성한 선물증정 및 지방회장 김영일 목사의 중보기도 인도, 최낙현 목사(평안교회)의 감사기도로 이어졌다. (기사제공: 미주여성 미국서남지방회)

LA군사랑선교회 송년 선교금 전달 총회

LA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희창 목사) 송년 선교금 전달 총회 및 보국기도모임을 지난 12월 31일 오전 11시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층 채플실에서 가졌다. 우선 보국 송년기도회 예배에서 회장인 김희창 목사는 '조국을 사랑하는 두 군인(민14:1-10)'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반의 위기인 조국을 상기시키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족적 대 혼란 중에 언약을 붙들며 미래의 확실성을 외치는 보수신앙 세력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안정돼 보전되고 발전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민자들 모두가 그런 군인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 권영구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장이 기도를, 조병국 목사가 조국보호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으며, 월드미션대학교에 간의 장소협력사용 감사금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서 김 회장은 시각장애인선교회 추영수 목사에게 선교금을 전달했고, 각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해 격려했다. 앞으로 군사랑선교회는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와 연합해

남가주군사랑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로 1월 14일(토) 오전 11시 1827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영생교회에서 모이고, 매일 둘째 토요일 11시에 하나로 모이게 된다. (기사제공: LA 군사랑선교회)



LA 군사랑선교회 송년 선교금 전달 총회 및 보국기도모임이 월드미션대학교 강당에서 가졌다

"선교적교회와 목회 리더십" 주제 3월 13-15일,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제 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교회와 목회 리더십(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이 2017년 3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소재한 주예수교회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이 주최하고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국내 선교위원회가 협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4회째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주 강사로는 이학준 교수(풀러신학대학원, 조직신학)가 "선교적교회와 이민 2세 교육, 신학선교수(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 사회복지학)는 "선교적교회의 사회복지적용실제",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담임)는 "선교적 교회의 이민목회 실제",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 담임)는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개발", 그리고 노승환 장로(주예수교회 장로)가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럽과 미주 선교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운동에 미주한인교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은 불과 5년 미만. 2014년에 미 동부지역 최초로 시작된 본 선교적교회 세미나는 새롭게 변화하는 이민목회 환경에 맞는 선교적교회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찬 목사는 "한국교

회의 새로운 선교방향과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선교적교회 운동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의 불균형 속에서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상으로 제시되는 교회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함께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교적교회이론의 다양한 이민목회 현장적용실제, 강사들의 상세한 목회리더십 멘토링, 미 전역에서 온 목회 지도자들과의 선교적교회현장에 대한 폭넓은 나눔과 교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의 선교적교회 공동체 리더십 협력 구축 등 참여하는 목회지도자들에게 선교적교회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이민교회의 목회적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등록문의는 주예수교회 홈페이지(www.ljkc.org)를 방문하거나, 교회사무실(804-560-7500, 7509)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2017 신년하례회 및 만찬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2017 신년하례회 및 만찬이 16일(월) 저녁 7시 플라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떡국 만찬으로 회비는 없으며 5인 이상 참석교회는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문의: (718)279-1414

동부개혁장신 제 11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제 27회 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에서 제 11회 총동문회의 밤이 1월 23일(월)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개인 30달러, 부부동반 50달러.

▲문의: (917)386-8852, 526-1248

동부개혁장신 2017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가 2017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저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1월 27일(토) 오후 6시, 입학시험은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1월 30일(월)-2월 1일(수)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2017년 "Blessed 교육 컨퍼런스"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저지노회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7년 제 5차 "Blessed 교육 컨퍼런스"가 2월 4일(토) 뉴저지초대교회에서 개최된다. 올해 주제는 "Oneness"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https://goo.gl/syiVHI).

▲문의: (215)237-3949, (646)300-4790.

뉴욕정원교회 이전

맨해튼 한인타운에 있었던 뉴욕정원교회(담임 주효식 목사)가 도보 10분 거리의 인근 새 건물로 교회당을 옮겼다. 새 주소는 1026 6th Ave, 2F1 North, New York, NY 10018.

▲문의: (212)62907327



뉴욕교협증경회장단 회장 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증경회장단 회장 신현택 목사 취임예배

뉴욕교협증경회장단 회장 신현택 목사 취임감사예배 및 신년감사예배가 지난 9일 오후 5시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렸다.

그동안 뉴욕교협 증경회장들이 모임을 가져오면서 친목과 교계에 자문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현택 목사가 회장이 되면서 취임식을 갖게 됐다.

예배는 김승희 목사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 성경봉독 윤오성 목사, 말씀 방지각 목사, 2부 기도 김영환 목사, 특송 김해복 전도사, 축

사 김용걸 증경회장,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김상태 목사회 회장, 송병기 증경회장, 공포태 증경, 취임축하패, 취임사 동영상(신현택 목사 일대기), 축도 장식진 목사, 만찬기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역대회장은 박희소 목사, 김용걸 신부, 김상모 목사, 김정국 목사, 장석진 목사, 방지각 목사, 김해종 감독, 최용렬 목사, 허걸 목사, 안창의 목사가 역임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회가 주최한 2017년 신년 특별구국기도회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성령운동뉴욕협, 2017년 신년 특별구국기도회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 2017년 신년특별구국기도회가 1월 6일 오후 8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김영철 목사, 기도 박진하 목사, 성경봉독 안경순 목사, 설교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기도는 김영환 목사 인도로 특별기도,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는 김명옥 목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유대용 목사가 북한 핵도발 중지를 위해, 최요셉 목사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마바울 목사가 미국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해, 조원태 목사가 성령충만한

영성회복을 위해, 김희복 목사가 뉴욕교계를 위해, 최윤섭 목사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영환 목사가 6개 기도제목으로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살롯장로교회 성탄예배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소개하고 있다.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KAPC 뉴욕지구 5개 노회 연합 신년하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뉴욕지구 노회 연합 신년하례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KAPC 뉴욕지구에는 가든노회, 뉴욕노회, 뉴욕남노회, 뉴욕동노회, 뉴욕서노회 등 5개 노회가 소속돼 있다.

연합신년하례회 취지에 대해 황상하 목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있다"며 "이번 연합하례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뉴욕지구 노회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여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어



KAPC 뉴욕지구 5개 노회 노회장들. 왼쪽부터 이승원 뉴욕서노회장, 황상하 뉴욕동노회장, 황경일 뉴욕남노회장, 조성훈 가든노회장, 이재덕 뉴욕남노회 부노회장.

가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는 이규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재덕 목사, 성경봉독 이춘호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 합심기도, 새

해덕담, 광고 박희열 목사, 축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뉴욕동)는 "개혁 500주년, 새로운 출발"(창35: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름이 번성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찾아오셔서 희망과 용기를 주셨다. 벨렐로 가라는 말씀은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KAPC가 할 일은 성경을 철저히 믿고 사수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신년산상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를 계속하고...깨어 있으라"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신년산상기도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제 27회 총동문회가 지난 2일과 3일 라마나웃기도원에 서 신년산상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정기태 목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전하며 환영인사를 했다.

도착예배부터 폐회예배까지 총 5회의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허윤준 목사("믿음이 기적이 되는 교회", 왕하2:9-20), 이원호 목사("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빌1:3-6), 황동익 목사("새사람을

입으라", 골3:9-10), 박해장 목사("새해 소망", 요15:5-11), 정기태 목사("새해에는 문제를 성공으로", 막4:35-41)가 말했다.

동문들은 △성령충만과 영성회복을 위하여 △동문들과 동문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한인인민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북한교회를 위하여) △미국의 대각성을 위하여 △세계 흩어져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신 동문회)



AKRCA 뉴욕 뉴저지 연합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AKRCA(한인RCA) 뉴욕 뉴저지 연합신년하례회

2017년 AKRCA(한인RCA) 뉴욕 뉴저지 연합신년하례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 뉴욕 동산교회(담임 이봉삼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조대형 목사 인도로 기도 정광희 목사(뉴저지회장), 설교 류승례 목사(뉴욕회장), 광고 임지운 목사, 축도 신성능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류승례 목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사60: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명령하셨다"며 "지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시온의 영광이 비추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전했다.

한편 AKRCA 뉴욕 "청지기 세미나 훈련"(제3주연회)이 22일 오후 4시 신광교회에서 개최된다.

(기사제공: AKRCA)

살롯장로교회, 성탄 및 송구영신 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가 예년과 같이 성탄 이브에 여전 도회에서 제공한 떡국 식사의 교제를 마치고 축하예배를 드린 후 먼 곳에서 온 자녀손들과 같이 가족찬양공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도 1, 2, 3등은 모두 많은 가족이 출연했던 팀들이 차지했다.

성탄절 아침예배는 연합예배로 드렸고, 영아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중고등부에서 마련한 성탄 찬양과 성구암송, 스킵 등을 선보여

차세대에 대한 기대의 좋은 시간이었다. 또 찬양대는 성탄 특별찬양 3곡을 연주했다.

송년예배는 31일 저녁 6시 식사와 교제 시작됐다. 식사 후 일년에 한 차례 나누는 식사대회에 온 교우들은 시간가는 줄 몰랐다.

나성근 목사는 디모데후서 4장 9-16절을 본문으로 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 철저한 신앙준비를 격려했고, 겨울 즉 환난의 시절이 오기 전에 신앙을 잘 준비하자고 격려했다.

설교 후 당회원들이 중요한 기도제목들을 갖고 대표로 교회와 국가, 조국, 세계 복음화와 평화, 선교사와 선교지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축도 전에는 온 성도들의 건강과 인간관계의 복원, 경제와 가족 친지 이웃의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기도를 받는 순서를 가졌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 신임회장 유상열 목사 정기총회...웹 제작, 사무총장제, 선교사양성 등 계획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29일 12월 정기예배 겸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부회장 유상열 목사를 선임했다.

유상열 목사는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겠다"며 "기본적인 후원아동 배가운동 사역과 함께 병행해 임기동안 해나갈 주요 과제는 △후원자들이 개인 후원사 동 정보 및 근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웹사이트 제작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제도 도입방안 모색 △사역 및 선교지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황동익 목사, 합심기도 인도 김수경 목사, 광고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동익 목사는 "새사람을 입으라"(골3:9-10)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사들의 할 일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목사가 뒤로 빠져야 한다"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새해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지"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사역보고(이찬양 간사), 감사보고(박성원 목사), 회계보고(권계덕인 목사)를 한 뒤 임원 선출 시간을 가졌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6년 사역은 △페루 사랑의 집짓기 4채 지원 △페루 아마우파 희망월드 컴 참가자 단체 티셔츠 지원 △콜롬비아 멜갈지역 사랑의 집짓기 1채 지원 △콜롬비아 멜갈지역 모기장 및 물탱크 지원 △콜롬비아 3개 아동센터(아구아다, 멜갈, 치아) 아동방문, 선물 소품지원 △콜롬비아 아구아다 지역 호르헤와 이벨라 결혼식 지원 △과테말라 CDP 프로그램, 사랑의 이삭교회, 방과 후교실 스텝 세미나 지원 △콜롬비아, 페루, 북한, 코트디부아르에 190여명 아동결연 등이다.

회계보고는 △아동결연: 수입 47524.82달러, 지출 40352.50달러, 잔액 7170.32달러 △일반회비: 수입 35017.50달러 지출 33779.91달러, 잔액 1337.59달러로 보고했다.

회의는 유상열 목사의 폐회기도 후 김홍석 목사의 친교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위에 것을 찾으라"

필라교협 신년감사 및 하례회 예배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천 목사)가 지난 8일 오후 5시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용 목사)에서 신년감사 및 하례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라는 교협 모토로 1부 김영천 목사 인도로 이정철 목사 기도, 송석현 목사가 골로새 3:1-4절을 봉독한 후 영생장로교회 남성중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설교는 백운용 목사가 "위에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유한한 세상 것보다 무한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전했다.

이어 이대우 목사 인도로 한인교회, 동포 사회, 선교단체, 2세와 한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합심기도

후 황준석 목사 축도, 김병일 목사 광고, 그리고 박동배 목사 만찬 기도 1부를 마쳤다.

이어서 친교실로 옮겨 영생교회서 제공한 만찬을 나누며 2부 순서를 박도성 사관 사회로 장병기 한인회 회장 신년사, 장권일 필라델피아협의회 회장의 대동행 신년사 대동행이 있는 후 직접회장 안문국 목사, 최승찬 장로의 감사패 전달식과 내빈 소개 후 강승호 목사의 폐회 기도도 마쳤다.

김영천 회장은 "고루지 못한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으신 분들, 만찬을 제공해주신 영생장로교회에 감사하다"며 6월에 있을 복음화대회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나성영락교회 새 담임 박은성 목사 확정 제직총회 투표결과 찬성 196대 반대 15



나성영락교회 제직총회에서 제5대 담임목사로 박은성 목사 청빙이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 새 담임 목사에 박은성 목사가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는 8일 오후3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 제직총회에서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인 박은성 목사는 찬성 196대 반대 15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빙이 확정됐다.

지영환 임시담임목사의 사회아래 진행된 제직총회는 제직들과 은퇴 장로, 은퇴 권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박은성 목사 청빙과 관련한 표결이 들어가기 전 1시간 가까이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한편, 나성영락교회 당회 측은 이번 제직총회에 참관한 언론사 기자들을 내쫓아 후임목사 청빙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나성영락교회 당회 측은 나성영

락교회 본당에서 참관하고 있는 언론 기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나가달라”며 분당 문을 폐쇄한 후 3명의 장로와 집사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한 은퇴장로는 취재를 막아선 장로와 집사들에게 “교회를 향해 쓴 소리를 하더라도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 나성영락교회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며 탄식을 쏟아 내기도 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벌어진 전임 김경진 목사의 해임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가 교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 부득이하게 참관을 불허하게 됐다고 하며, 원래 제직회는 제직이 아니면 참관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박은성 목사는 오는 2월경부터 사역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 2017 신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박기호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충현선교교회 2017 신년부흥회, 강사 박기호 교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2017 신년부흥회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주제로 5일부터 8일까지 박기호 교수(풀리신 학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8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박기호 교수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부여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창3장)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추악해졌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으나 믿음의 가족 노아와 식구들을 남기셨

다. 그리고 다시 노아와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며 “하나님은 세계구원을 위해 사명자들을 불러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다. 우리에게 선교명령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박기호 교수는 첫날 저녁집회는 ‘참된 축복’(왕상 8:54-61), 둘째 날 새벽 ‘받으시는 삶과 예배’(창 4:1-15), 둘째 날 저녁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눅10:24-37), 셋째 날 새벽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17), 셋째 날 저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갈 5:14, 약2:8)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인협회 2017 정기총회 및 신년축하예배 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독교인협회 신임회장에게 방동섭 목사 2017 정기총회 및 신년축하예배

기독교인협회(회장 정정숙) 정기총회 회장에 방동섭 목사를, 부회장에 이보영 장로를 선출했다.

정정숙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사업보고, 회계보고 순으로 이어졌으며 임원선출 시간에서 본회 부회장 방동섭 목사를 회장으로, 회계 이보영 장로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서기에 이성숙 회원, 회계에 양선미 회원을 임명했다.

또한 본회 이사장인 정정숙 회장이 맡게 됐으며 감사에 원희천 목사와 김종용 목사가 임명됐다.

신임회장 방동섭 목사는 “흠이 많은 사람이 회장이 돼서 걱정이 다. 협회가 좀 더 젊어져야겠다. 젊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독교학 20집까지 나

왔다. 문학집을 좀더 발전해서 일반대학과 기독교학을 관심가지고 있는 단체 연구기관에 전달해서 20년간 활동을 알리고 논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본 협회에서 중단했던 회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크리스천 문학가 배출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회직전에 시작된 1부 예배는 방동섭 목사 사회로, 강경태 목사가 기도했으며 고영준 목사가 ‘복 받은 사람’(약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선호 목사의 시를 방동섭 목사가 대독했으며 원희천 목사가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제자회 한인총회 임시총회 및 세미나

제자회(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한인총회 임시총회 및 세미나가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캐년 데스벨리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주제는 “이민목회와 인문학”이며 강사는 이승종 목사. ▲문의: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단장 이종희 목사)의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원회장이 주최하는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6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실시한다. ▲문의: (657)400-9570



남가주 새언약교회 연합 특별새벽기도회가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에브리원교회 연합 특새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했다.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기도회가 다른 특별새벽기도회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개교회 중심의 한 교회만의 특새가 아닌 같은 빌딩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에브리원교회(담임 이규복 목사)와 함께 신년을 기도로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번 신년 특새 강사로선 각 교회 담임인 강양규 목사와 이규복 목사, 임문의 선교사(필리핀)가 각각 맡았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규복 목사가 “기도의 파워와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은 임문의 선교사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셋째 날과 넷째 날은 강양규 목사가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라”는 말씀과 “시련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두 교회는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빌딩에 있다는 것과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 그 자체로

(기사제공: 남가주 새언약교회)

소망소사이어티, 5일 2017년 시무식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어 10주년을 맞는 소망의 2017년도 신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4월말 2박3일 일정으로 죽음전문지도자 교육과 포럼 △11월 6일 율복의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소망우물 스펜서 투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컨퍼런스 등이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담임)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소망 살기”가 ‘예수 믿기’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면서 소망의 사역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소망의 사역에 동참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자고 강조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 12월에 보내는 6개의 소망우물을 포함해 그동안 302개의 소망우물이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12월에 3명의 독지가들이 주신 후원금 2천 달러로 차드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했고, 차드에서 보낸 감사 영상을 같이 보면서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소망소사이어티 2017년 시무식에서 스펜서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은 올해 자원봉사 할 6명의 자원봉사부장들, 박혜수(교육부), 차귀옥(소망케어부), 정영길(해외협력부), 데보라리(봉사부), 유태윤(홍보부), 현월서(회원관리부)부장을 임명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들로스선교교회 신년축복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진유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제 들로스선교교회 신년축복부흥성회, 강사 진유철 목사

들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5일부터 8일까지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진유철 목사는 첫날집회에서 ‘소유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눅 15:17-2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야곱은 빈손으로 도망간 이민세상이었다. 하지만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그는 베델에서 잡다다 하나님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신 것을 보고 기름 부어 하나님께 소원했다”며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빈손 들고 출발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에 있었더니 그가 하는 일

보다 더 잘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의 복을 내려 주지 않겠나?”며 “그러나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면 실패한다. 에덴동산은 풍요로운 땅이고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깨어버리니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게 됐다. 그러다 보니 에덴동산이 가시영경귀 나는 곳이 돼버렸다.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지적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마음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영 어: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

GMS미주선교사훈련 4기 과정 연다

2월13일-3월3일, 컴미션에서 실시

GMS미주선교사훈련원(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은 오는 2월 13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 3주간 2017년 GMS 미주선교사훈련(OMTC) 4기 과정을 컴미션(대표 이재환 선교사)에서 실시한다.

이병구 훈련원장은 “미국은 이미 선교지가 돼버렸다. 따라서 로컬교회들이 선교적으로 전환해 선교적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GMS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병구 훈련원장은 “미국은 이미 선교지가 돼버렸다. 따라서 로컬교회들이 선교적으로 전환해 선교적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GMS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614-3666 (박준호 기자)

동을 하게 되고 GMS 파송선교사도 활동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훈련과정은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히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실버 선교사를 위한 훈련이다. 강사진은 박무용 OMTC 이사장, 이상돈 이사, 문상돈 이사, 이병구 선교사, 박기호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김정환 선교사, 김수봉 선교사, 이승일 선교사, 박시경 선교사, 김영록 선교사, 박선기 선교사, 김명환 선교사, 김기동 목사, 김현완 교수, 김에녹 교수, 이근 목사, 조나단 박사 및 전문가, 현장 선교사들이다. 훈련과정은 GMS 정신과 정체성, 세계선교동향, 21C선교전략, 건강

한 선교, 선교역사, 선교와 제자도, 타문화권 이해, 미션플랜팅, 선교 사생활과 사역, 선교사 스트레스관리, 선교사 후원개발, 출구전략, 팀 사역원리, 비즈니스선교, 전문인선교, 선교사 가정생활, 선교신학기초, 선교사와 설교개발, 선교와 전도, 선교와 복음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훈련비는 1인당 1,300달러(숙박 식사 포함)이며 오는 2월 4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한편 GMS는 앞으로 지역교회와 평신도훈련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선교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회개와 회복’ ‘공의와 개혁’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교계 신년사 키워드

새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의 대표들은 잇따라 신년사를 발표하고 ‘회개를 전제로 한 복음주의 회개’ ‘공의실현과 섬김을 통한 사회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과거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일에 힘써준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을 썼다”며 “섬김을 위주로 선교한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자”고 권면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의 모임으로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쳐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며 “교회는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본성인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회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며 “고인 물이 썩듯이 개혁하지 않은 고인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부터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회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맘몬주의에서 비롯된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이라며 “목회자들은 영적 각성을 통한 품성의 변화와 성서적 거룩을 강조하지 않고 대신 물질적 풍요 등을 믿음과 구원 징표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감독회장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유관재 회장도 “손에 쥐고, 소유하며, 더 높아지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 교회는 오히려 더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암울했던 2016년을 보내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그러나 정적권은 정치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갈망하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힘겨루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회장은 “변화는 회개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사회와 교회가 죄

의 길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 안보르시오스 조성암 회장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 사회가 행한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잡고, 일상에서 행했던 그릇된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도모한 대통령과 그 측근들뿐 아니라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때로 외면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김경원 대표회장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진정한 연합을 이루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출범하고, 목회자와 교회의 실제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간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공식 출범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감리교회서 출범감사예배

한국교회가 선교 132년 만에 하나 됐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칭)는 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진보·보수, 신학적 교리, 체제를 뛰어넘는 교회연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정동제일감리교회는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역사적 교회다. 한국교회의 근원(根源), 시작점에서 하나 됨이 선포된 것이다.

한교총은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의 주요 교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제3의 단체 개념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실제로 이날 예배에는 NCKC의 핵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루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가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한교총은 단순히 한기총과 한교연을 합치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아

우르는 개념”이라며 “기독권을 내려놓고 계속 대화하면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유관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도 “한교총은 한국교회 공교단을 포괄하는 연합으로 대정부 활동과 대사회적 기독교 변증 역할을 극대화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앞으로 현상 교회가 직면한 각종 이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 선거 때도 기독교적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금년 대선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북한 선교와 통일운동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장·감·성·순·침이 함께하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교총이 출범함으로써 한국교회는 교회적·사회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한국교회 7대 교단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교총은 한국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교총은 한기총 법인에 회원교단을, 한교연 법인에 단체를 가입시킬 예

정이다.

특히 이날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류광수씨의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라방)가 한기총에 탈퇴를 제출함으로써 한기총의 이단 문제를 이유로 한교총에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합류할 수 있는 명분도 확보됐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이 류씨 등 이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합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기총은 10일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류씨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김필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은 “교회의 하나 됨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명령”이라면서 “교권과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 돼 달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도 “한기총과 한교연이 잠음과 마찰 없이 완전하게 한교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영모 CBS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반대 명분도, 시도도, 비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교총은 선거 없이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김선규(예장합동) 이성희(예장통합) 총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단성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가입심사도 거친다. 사무실은 예장대신 총회건물을 임시로 사용키로 했다.

변화·갱신 위한 ‘골든타임’ ...한국교회가 움직인다 교계 전체 연중 캠페인·개혁 실천운동 봇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교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교단별, 단체별 연중 캠페인과 기념행사가 봇물 터지듯 계획되고 있어서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개혁 실천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회복 캠페인도 연중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분열과 논쟁으로 갈라졌던 한국교회는 차체에 변화와 갱신,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부터 개혁이다.’

‘믿음·소망·사랑의 언어를 적극 사용한다’ ‘매일 10분 이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회와 성도의 개혁실천과제 중 일부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형식을 본 따 실천과제 14개 부문 95개 조항을 제시했다. 예장 통합 관계자는 1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교회가 타락했음과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행사와 캠페인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은 올해 3·1절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정직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박경배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는 다양한 메시지를 속에서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다시금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정직”이라며 “‘나부터 정직하자’는 캠페인을 전국의 회원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24개 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 등 5개 연합기관,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 등은 국민일보와 CBS가 함께 펼치는 ‘나부터’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 캠페인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나부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젠 말씀 실천에 나서야 할 때 주요 교단과 교계 단체들이 펼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은 ‘다짐’보다는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롬1:17)는 믿음의 중요성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

익이 있느냐’(약2:14)는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 속 진리의 균형을 잃지 않겠다는 취지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온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95개 논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신학자뿐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를 정해 실천하자는 것이다.

국내 양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합동 교단은 ‘3355+기도운동’을 전국 규모로 펼친다. 이 운동은 두 세 사람이 모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며 다섯 가지 경건한 삶을 실천하자는 ‘생활밀착형’ 신앙 실천 운동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목회자윤리강령’을 제정하는 한편 ‘한국장로교회 5000기도단’을 통한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예장통합은 교단 산하 8700여 교회가 참여하는 ‘성경통독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성경을 개혁의 동력으로 여기고 이를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이 말씀위에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단들은 일선 교회 목회자들의 종교개혁 500주년 목회 지원에 힘쓰고 있다. 예장합신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는 ‘2017년 목회 매뉴얼’을 일선 목회자들에게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 자료(설교 본문과 참고 도서 등)가 담겨 있다.

앞서 예장고신은 개별 교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종교개혁 소책자 시리즈’ 12권을 최근 완간했다. 총회는 매월 한 권씩 목회와 독서 자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신학부 주관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주의

신학대회’를 오는 3월부터 호남과 영남 수도권 중부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초교과 부흥사역연합체인 세계성령중양협의회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자’ 등의 ‘8개 강령’을 신앙의 지표로 제시했다.

다양한 기념행사 봇물

한국루터회는 10월 28-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초교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대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8월에는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을 초청해 ‘복음과 평화’를 주제로 미션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NCKC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대회를 열기로 했다. 회원교단은 물론 보수와 진보 등 진영에 국한 받지 않고 한국교회 전반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성령중양협의회는 10월 15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한국교회개혁기도성회’를 연다.

예장합신은 ‘세계 Refo500(회장 헤르만 셀더르하위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로 종교개혁 500주년뿐 아니라 2018년 열리는 도르트회의의 400주년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도르트회의는 1618년 네덜란드 도르트(도르트레흐트)에서 개최된 종교회의로 칼뱅주의 5대 교리를 확립한 회의다.

가정사역 비정부단체(NGO)인 하이패밀리는 생활개혁에 초점을 맞춘 콘퍼런스 ‘목회자의 가정생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루터와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사역자였다’란 관점에서 그들의 가정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기독의원들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 추진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 지목...이동섭 의원 “개정안 마련”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지목돼 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차세대바보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은 4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동성 간 성행위를 법적으로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국가인권위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수많은 보건·윤리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법 개정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性的)지향’을 포

함시킨 바 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따라 2004년 청소년 유해영상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켰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과서 등 각종 교육자료도 학교현장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교토소 선교칼럼 (12)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10년 만에 찾은 기쁨

교토소에서 신앙상담을 하다보면 제가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쁨과 선교의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잊어 버렸던 기쁨을 찾은 캠퍼스라는 한 재소자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른 신에 대한 책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그런 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캠퍼스가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혼자 참석을 했는데 자신의 잃어버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교토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녀들을 정북기 관에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후 마약을 사용하다 다시 교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토소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10년 동안 사탄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전에 가졌던 기쁨을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그날 준비한 성경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날의 성경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가족에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우상을 달라고 해서 나무 밑에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창 35:1-4).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성경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잃은 것은 하나님

과의 가까운 사랑의 관계며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고 캠퍼스에게 그전의 기쁨 속에서 살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의 예를 들어서 저 자신도 한때는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한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느냐고 물어 보신 후에 삶을 돌아보니 믿음이 있었을 때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믿음이 식어진 때는 교회는 참석했으나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느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주님에게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우상을 섬긴 것을 용서해 달라고 또 그가 실수로 잘못해서 얻은 모든 마귀의 문들을 닫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캠퍼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날은 감방 안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이틀 후에 만났을 때는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환한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기쁨을 잃었을 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에 체험했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 주실 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던 기쁨이 이제 다시 저에게 있습니다.”

캠퍼스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캠퍼스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기쁨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고 그런 습관을 버리고 경건한 습관을 기르려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헤쳐갈 때 우리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캠퍼스와 같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토소에서 사탄 숭배에 빠져서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찾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yonhui.mcdonald@gmail.com



인도네시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1:24).

살롬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자님들께. 초겨울을 맞으며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지만, 잠시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조국교회와 우리나라를 힘 있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선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교회가 생명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열어가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인도네시아 소식

10월 중순부터 인도네시아는 우기 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씩 쉬지 않고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홍수 사태가 나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등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기독교인 주지사의 이슬람 종교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아 주지사 퇴진 데모로 인하여 차기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혼란한 정국 가운데 대통령이 이슬람 지도자들과 중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바탐 섬에서는 인산인마 토지세금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역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또한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기도도 더 간구하게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역소식 및 기도제목

1. 바탐 국제대학교에서 10월부터 1학기 한글 수업을 개강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한글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판중피남 지역에 학교 건축을 위한 현황측량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천 기술고등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걸음을 내어 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서류의 진행과 교직원과 스텝들의 준비를 위해 집중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3. 판중피남 지역에 부서진 가정교회들을 돌아보고 수성가속 가정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지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하여 어린이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지 마련과 유치

원 건축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의 동의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4. 성경연장교육(BEE)과 신학연장교육(TEE) 세미나가 새로이 이사한 집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해, 세미나 준비와 안전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5. 인도네시아 현지 비영리사회법인 만드는 일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을 통해 더 많은 일(교회 개척과 건축, 학교, 병원, 고아원, 사회봉사단체, 긴급구조 활동 등)들을 한 가지씩 잘 진행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열어 주시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 가족 소식 및 기도제목

1.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생각보다 몸이 앞서서 무리하지 않고 우기철에 몸 상하지 않도록).



2. 첫째 현준이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바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주님이 인도해주시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기를.

3. 둘째 현민(중1)이 가족사 생활과 학교생활을 위해서(믿음의 친구들과 만남과 아프지 않고 위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4. 협력하는 현지교단과 아름다운 동역과 주변 섬들을 순회하며 사역하고 정담 다니는 배편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네시아 2역의 무슬림들과 선교사가족을 기억해주시고, 중보해주시기에 저희는 인도네시아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무슬림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선교 사역들을 위해 날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중보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늘아래 인도네시아에서
김태호 장영희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48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co.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영목회(월-금): 오전 5:30 주일영양예배: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f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절은이예배: 오후 11:20 영아권(영성-KDC, 영성드림센터)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 학교: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jr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임하는 선교부”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녹음),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류찬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요일)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찬양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영아권(영성-KDC, 영성드림센터)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광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365일 24시간 소모 www.gracem.com Tel: (714)446-8280, Fax: (714)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8259 Fax: (714)646-8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광bul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gc.org Tel: 310-370-8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피부로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및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국 정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본 뒤에 성경 본문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은 물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들과 한인교회들 그리고 열맹인 미국정부는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들조차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가결하고, 현재는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촛불 군중과 국회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재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대로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의도적인 재판을 한다면 예상 못한 태극기 군중과 전 국민의 5분의 4가 일어나 예상을 초월한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위조, 거짓, 조작이 들어났는데도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목을 내놓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미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정황에 대한

자금이 비축되어있어도 북한을 돕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외교를 통해 북한에 협조해왔던 에티오피아, 우간다, 쿠바까지 북한 핵 포기 협조를 얻어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큰 외교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전교조를 "법외노조" 즉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중북 좌파세력들이 기어코 끌어내리려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탄로되었습니다.

변희재 씨가 Sesame Tube(참깨방송)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삼양동 비밀아지트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 날 동안 모의하였다는 것을 "변희재 시국 대 특종"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손석희 씨의 거짓 해명을 통하여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쉽게 하였는데, 탄핵 후 손석희의 해명이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항의도 없습니다.

국회국정조사, 검찰조사, 언론선동, 촛불조장, 특검, 세월호까지 끌어들이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집중공격하고, 모든 수

순실의 국정농단, 내란 음모를 시도한 것이 백일하에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손석희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가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만들어 낸 주범들은 JTBC의 손석희 사장을 비롯하여, 심수미 기자, 손영석 취재팀장, 김필준 기자, 서복현 기자 이상 5명입니다. 이 사실들은 자유총연맹 총재 사회특보 변희재 씨가 폭로한 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광우병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이명박 탄핵을 소리치게 했으나 실패했던 손석희는 또다시 허위로 국정을 혼란케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오게 했습니다. JTBC의 손석희 손에 들어가 손석희는 독일까지 가서 태블릿 PC내용을 조작하였다는 것을 변희재 씨가 폭로하였고, 지금 한국 참깨 방송, 신의 한 수 방송사에서 그것을 폭로하였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협상반대를 위해 출발한 촛불시위가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는데, 5월 2일 첫 집회 이후 2개월간 수십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었다.

일부 학교 교사들은 종교생들의 시위 참

특별기고

하나님의 역사(출14:15-16)

-오늘 한국 정황과 관련하여

정보는 좌경화된 SBS, MBC, KBS, YTN, MBN 방송사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류 언론들이 선동하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므로 그대로 주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도 5개의 TV 주류 방송사와 조, 중, 동 신문사들의 소셜 같은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였고, 돈에 매수되어 모인 촛불시위를 민심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5개의 방송사들이 한 속이 되어 한국의 현 정부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면서 현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좌파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이 46명의 방송사 및 신문사 사장들을 데리고 북한 김정일 앞에서 4개의 금지 사항에 싸인함으로 사실상 총성 맹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왜 방송 및 신문 언론사들이 북한에 코가 끼인 듯 종북 및 친북 성향을 가지고 반정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46명의 언론사 대표들이 북한과의 약속을 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표들이 북한에 갔을 때 성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협조 안한다면 찍어놓은 비디오텍트릴 것이라고 협박을 받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목사들 중에 LA의 모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간첩과 중북 좌파세력들이 불법, 선동, 폭력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북한탈북 기자인 강철환 씨가 도쿄마포사회에 와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사범부에 침투한 자들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배 검사들의 비리를 후배가 심문할 때, "야! 나는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놈이야"라고 말했다는 것도 모 신문 발행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분야에 상상 이상으로 적화되어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철 씨는 한국일보 칼럼에서 남한에 북한 땅굴의 출구가 호남, 영남, 경기 3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해 전에 칼럼에서 말한 것을 읽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협박하므로 북한은 대화단계론 불가능이라 판단했고, UN과 미국도 대화가 아닌 북한과의 무역거래 및 은행거래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단을 총동원하여 박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현 민주정부를 몰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대통령의 탄핵문제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하려는 좌파세력이 지난 15년 동안 암약해 온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한 내 좌파세력의 핵심인사들은 연초가 되면 항상 "원탁회의"란 이름으로 모여서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토론하고 이를 실현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분열 배후에 있는 "숨은 손"이라 불리는 이 원탁회의는 10여년 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주도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원탁회의"를 통해서 총선 야권연대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고, 세월호 때도 특별법 제협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들로써 북한정권과 오래된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전략(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따르며, 그 기반 하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존재라고 합니다.

이 원탁회의에 핵심인물로 좌파세력의 거두로 불리는 백낙청(78)은 서울대 명예교수요 영문학자로 지난 반세기 동안 좌편향된 대한민국 지식권력을 위락파라해 온 범야권 재야의 좌장(座長)이자 좌파 지식계의 대부로 여겨지는 자라합니다. 그는 가장 깊숙이 숨어있으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받지 않으면서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지적 도덕적 권위를 행해왔던 아주 위험인물입니다. 이 원탁회의에는 백승현(전 민병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야당의 유력한 핵심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당 박지원의 배후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야당의 좌파세력의 배후를 세심하게 조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 사건을 몰고 온 계기는 바로 최순실의 태블릿 PC라는 것인데, 그 태블릿 PC 안의 내용 200여개가 청와대 기밀문서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비선으로 연락해온 것이라고 언론들이 만 천하에 퍼트리면서 대통령이 기밀을 누설하였고,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하였고, 온 국민에게 주요 방송과 신문들이 얼마나 떠들고 선동하였는지 국회가 언론에 얼마나 대대적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지각과 역사관은 자객 미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언론은 수사기관이 흘리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보도해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동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100명 내외이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재정소비와 국민을 피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손석희한테 주었고, 손석희는 김한수의 태블릿 PC를 검찰과 짜고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공개하여 최

여를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다며 참석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도 많았고, 연예인이나 음악가들이 많이 참가하여 '문화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집회가 끝난 뒤 거리행진을 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그 때도 소통 없는 정치라고 비판하고, 시위를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본 사태를 촉발시킨 MBC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허위성이 있었다고 분명히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광우병 허위 사실을 일으킨 주범인 손석희가 이번에는 최순실의 것이 아닌 태블릿 PC와 거기에 담긴 내용들을 위조하여 퍼트리면서 온갖 의혹을 갖게 하였고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고 왔고, 이제 특검과 현재의 탄핵을 촉구하여 박근혜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박근혜를 퇴진시키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말로 공산화 되느냐, 아니면 자유 민주체제를 유지하느냐의 갈래 길에 선 선택다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비리를 조작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고,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헛갈리고, 삼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몰고 넘어지는 배후에는, 세월호 304명이 죽도록 물살이 센 쪽으로 가면서 배의 맞을 내리도록 지시한 사람이 야당의 P라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박 대통령이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진영의 조용한 다수는 돈으로 매수한 촛불을 민심이라고 선동하는 언론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보수세력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겨진 허위와 조작들을 목숨을 걸고 양심선언하고 폭로하여 정의편에 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새벽마다 한국과 해외의 한교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카라의 기도를 하며 또 워싱턴 주 페더럴웨이 한 모텔에서 구국기도회가 해 온 카라의 기도(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태블릿PC조작사건을 폭로한 변희재, 그리고 좌파 세력이 선동과 불법을 조장해 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성주 장군과 윤용 교수(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은퇴교수)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고 있고, 그 외 군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 등 15개의 보수단체는 드디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오늘의 한국 정황을 초래한 최초의 계기요 문제가 되었던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인지, 임수남씨, 임수경씨, 임수장소까지 모두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혼란의 발단이 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이 문제를 본

● 신년시

새해 새아침의 맹세



전정구 목사 (헤이스신학교 성경신학 및 조직신학 교수)

철쭉같은 어둠이
아침안개처럼
잠잠히 벗겨지고
새해 새아침
동글동글
새아침의 해가
돌아올랐습니다

동글동글
새해 새아침의 해가
우리 영혼에
붉은 답살처럼
돌아오르는
이 신비로운 새해 새아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요

산까치가
지금도
잊혀진 우리 마음의 고향
우물가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가치까지 설날을
지치도록 노래하면

물기르는 이쁜 소녀의
가슴에 답살 돋는
산울림으로 번져가는
새해 새아침의 맹세

우리 영혼의 잊혀지지 않는
고향에
붉은 답살 돋는
신비로움으로 새겨져
세월이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는
새해 새아침의 맹세

covenantjeon@yahoo.com

명하게 해명해야 하는데도 캐묻지도 않고 조용히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물밑으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현재에 조사 항목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탄핵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도 모든 거짓들과 조작이 탄로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12월 16일 손석희를 고의적인 조작과 허위보도를 내란죄로 소송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 공식적인 법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데 만약 제외된다면 버스간 뒤 손을 드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 국회, 검찰, 특검, 현재 모두가 한 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 거의가 허위라는 소식을 한국의 친구를 통해 소식 받았 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함께 사건 내용을 조작한 것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광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애국심을 가진 태극기를 든 시가행진의 군중이, 촛불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영하 6도의 예고된 추위에도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은 물론 전국 각 도시에서 천만 명이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다수, 말 없는 다수의 국민이 의분을 발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흥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잡으려고 오는 애굽 병정들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카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15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라"란 히브리어로 서 영어로 cry out, 즉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앞뒤와 구 길이 없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방법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조차 못했던 바다를 갈라져 고속도로(freeway)가 눈앞에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흥해를 육지같이 건네고, 원망과 절망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굳이 해석한다면, 우리 인간이 일하면,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다 응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한나의 눈물어린 기도, 야베스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려운 문제도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또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skimwa@comcast.net

(5)중보기도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부흥성장한 때를 보면 항상 배후의 강력한 중보기도의 운동이 있었다. 1907년에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한국에 나온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1903년 원산에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각처에 흩어져서 40일 동안 매일 오후 4시-5시에 한 시간 동안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을 결정하였다. 각처에 흩어져서 같은 시간에 한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것이 씨앗이 되어 그 후 1906년 평양에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1907년에는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회성장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이 "교회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나?"하고 묻자 담임목사님이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하실에 있는 중보기도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와

3.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동역팀
목회자에게는 중보기도의 동역자팀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회자가 기도의 지원을 받고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개발해야 한다.
1)영적리더 스스로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풀러 신학대학교의 교회성장학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왜 절실히 필요한가를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목회자가 더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탐욕, 명예, 권력, 물질, 이성문제, 교만 등 누구보다도 더 많은 유혹을 쉽게 받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항상 지도자를 공격대상으로 삼는다. 목회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공적인 인물로 그의 실수는 쉽게 구설수에 올라 하나님의

말레이 이겼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여주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던 아론과 훌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영적 리더들에게는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은 말없이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3)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르쳐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목회자의 설교 등을 통해서 미리 토양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사도적 권위(롬1:1)찬344장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사도의 터 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엡2:20).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복음이 사도적 권위 위에서 있음을 주장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던 그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세전에 택정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직

분이 창세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기원을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밝힙니다. 셋째, 그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음이 창세전에 준비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복음에 나의 생애를 건 새해를 살아갑니다.

화 복음이란 무엇인가?(롬1:1-4)찬271장

사도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것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여러 상징과 모형으로 증거된 것은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그 아들로 더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히1:1-2). 둘째, 그는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성자는 기이한 방법으로 오실 필요가 없이 다윗의 혈통 곧, 참 인간의 모

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만이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최대의 증거를 그의 부활사건에 두었습니다. 한 해의 황해도 복음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이 모든 생활에 나타나는 목표로 살아갑니다.

수 은혜와 평강의 문안(롬1:5-7)찬97장

사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로마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축원을 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 복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은 자들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셋째,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될 때 가장 복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거저주신 구원을 중심한 선물이고 평강은 그후에 내려지는 은택을 가리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평강은 따라옵니다. 은혜 없이 평강이 없으며 평강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새해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생활을 이룹니다.

목 바울의 감사 이유(롬1:8-10)찬474장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됨을 감사했습니다(8). 로마교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당시 소수세력에 불과한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은 장차 온 세상 속에 강하게 증거될 것을 본 것입니다. 둘째, 선한 양심으로 감사했습니다(9). 인위적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기회

로 그 아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양심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10). 로마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복됨을 아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기를 구하는 삶이 복됩니다.

금 바울의 방문 목적(롬1:11-12)찬178장

로마교회를 심방함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11).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의 복음내용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11). 강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달라붙어있을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복음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의 위로를 얻게 하려는데 있습니다(12).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로마교인에게 하늘의 위리가 필요함을 잘 아는 바울은 말씀의 위리로 초점을 두고 그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위리의 능력으로 한해를 승리합니다.

토 복음의 빛을 진 신자(롬1:13-14)찬355장

빛은 무거우나 복음의 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복음은 그리스도이며 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4). 복음이란 그리스도 곧, 그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자는 그 귀중성 때문에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복음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13). 누구나 믿어야 할 복음인 것은 죄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

음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기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14). 유대주의와 헬라철학을 능가하는 그의 복음은 온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창12:3)을 위시한 구약선지자들이 전한 범세계적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해는 복음의 빛진 자로 살아갑니다.

화 작업을 해야 한다. 즉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가르쳐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 기적이 일어나며 다른 사람과 교회를 돕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4.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 1)감사와 찬양
- 2)회개와 기도
- 3)성령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 4)기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1)



이희숙 사모

중보기도자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는다.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지원하는 중보기도팀이 꼭 필요한 것이다.

2)목회자 및 영적 리더들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깊이 아는 만큼 그것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영적 리더들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실제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 스스로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성도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때 중보기도에 대해 더 깊이 확신을 가지게 되므로 목회자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쌓아야 한다.

출애굽기 17장 8-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두 팔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었다.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아

글과글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부흥의 비결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오늘날도 급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뜨거운 중보기도 운동을 바탕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에서 사모가 강력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고 교회부흥에 큰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감히 부탁해 본다. 필자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주셔서 교회에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며 체험하였다.

한인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미국교회를 빌려 작은 채플에서 10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자체 성전을 주시기를 부르짖고 중보기도해서 기적적으로 350석이나 되는 큰 미국교회를 사서 들어갔다. 그런데 큰 성전에 100명 정도의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쓸쓸하였다 그래서 큰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성전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교회부흥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3천명이 5천명이 되고 5천명이 수만 명으로 부흥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중보기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가득 차도록 부흥시켜 주셨다.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 (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2017 겨울 학기 인텐시브 • 개강 1월 23일~2월 4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FAFSA) 가능하며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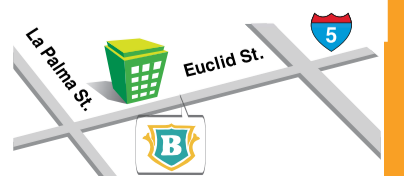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입학안내 문의 : 직통 213.327.8095 켄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후 전략... 배우고 성장하라!

교회건설링전문기관 TMG, 미 개척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소개

“1만 명 중 1개골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인구의 1%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되는 셈이라는 연구와 기존자료가 있었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만약 이 비중이 1천 명으로 낮아지면, 그 지역의 15-20%는 교회에 출석한 단 뜻인 셈이고 500명 당 1개 교회로 그 비율을 낮추면, 약 40% 이상의 지역인구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역 인구 대비 교회의 숫자가 많을수록 성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다.”(-팀 켈러 목사)

팀 켈러 목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안정하고 큰 위험요소가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연구들은 굉장히 살벌하게 통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3년간 10개 개척교회 중 약 3-4개의

교회가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이 수치가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 교회가 당신의 교회라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 받은 지상명령을 준엄한 목적으로 여기는 목회자라면 개척교회에 대한 열려와 기도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모든 개척교회가 (목회적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할 10가지 실수들에 대해 다룬다.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10가지 실수들은 지난 3년간 꽤 빈번히 발생된 문제들이고 개척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유들이다(10 Deadly Church Planting Mistakes).

1) 목회자의 불충분한 자기검증의 시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 부흥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가 별도로 있듯이, 교회 개척에 탁월한 목회자도 따로 있다. 개척교회에 성공하는 목회자들의 역량 혹은 성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타고난 기질이 있음을 성격검사 DISC 혹은 MBTI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경륜과 함께 개발되는 능력과 자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공요인들은 타고난 기질 및 성격과 많이 연결돼 있다.

충분한 준비와 기본기가 없으면 개척교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개척교회가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회 개척을 할 만한 기질과 타고난 역량이 있는지 자기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성검사 혹은 신앙상담을 통해 스스로가 준비 되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2) 충분한 지도 없이 진행되는 개척과정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다. 말 그대로 수백 가지의 일들이 개척의 길에 놓여있다. 작든 크든, 교회가 개척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수고들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과정에서 실수로 빠먹거나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 개척에 대한 노하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지도를 꼭 받아야 한다. 당신보다 앞서 교회를 개척했던 선배 목회자, 혹은 당신의 개척과정을 찬찬히 검토해줄 수 있는 동역자나 조력자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조력자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꽤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비결 중 하나다.

3) 불충분한 준비 기간

피터 와그너의 말이 한 때 종종 회자 됐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이 발언 이후 교회 개척은 굉장히 신나고 생동적인 일로 여겨졌고 몇 주, 혹은 몇 달 간의 짧은 기획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일어났었다. 이 착각은 개척교회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실수다.

아가기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9개



목회자의 충분한 자기검증 필요, 동역자와 재정도 준비돼 있어야 충분한 동화 과정, 지역정보, 리더 발굴 양육 성장 프로그램 준비

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개척 또한 9개월에서 12개월이 가장 적당하지만, 적어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빠른 교회개척은 중요한 과정들이 어영부영 진행되었거나 빠졌을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빠른 개척이 당장에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준비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필요한 과정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4) 불충분한 동역자

개척교회에 대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는 한 남자가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표지의 남자는 굉장히 남성스럽고 강력한 사람으로 묘사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고 위험한 이

미지이다. 지옥의 문을 정복하고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이미지의 ‘나홀로’ 목회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끔찍한 실수다.

성공한 개척교회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닌, 팀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물론 모든 개척교회가 사역자들을 고용해 월급을 주며 꾸려질 순 없을 것이다.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되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것이다.

5) 불충분한 교회의 규모

너무 빠른 교회 개척도 문제이지만, 너무 작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둘은 보통 연결돼있는 문제점들인데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최소 60-75명의 성도로 시작하는 교회다. 50명 미만의 교회는 장기적으로도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개척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75명이 있을 경우 그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어려움도 줄어든다.

둘째, 75명의 개척 멤버들이 바로 당신의 교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50명 미만으로는 교회가 새로 세워졌음을 널리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50명 미만으로는 충분한 목회와 사역을 일구어나가기가 어려워진다. 개척 멤버들은 대부분이 봉사자들이고 구성돼있다. 충분한 봉사자들이 없다면 그 목회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목회가 한번 실패한 뒤로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즉 개척교회의 입장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셈이다. 작은 규모로 교회를 시작하지 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6) 불충분한 내부 재정

내가 2011년에 도움을 줬던 개척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던 주일부터 93% 자립이 된 교회였다. 나는 이 모습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됐다. 그와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너무 의존이 돼있고 외부 지원이 줄어들 때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기도 한다.

개척교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교회가 개척될 당시 75%가 외부 지원으로 충당했다면 예산의 60%로 그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15%는 내부적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을 멀리 내다보고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7) 불충분한 동화(同化) 과정

개척교회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 또한 새롭고 차별화된 무언가를 기대하며 오게 된다. 그 새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교회를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새로운 분위기가 종

비전과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역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지역 출신의 리더들을 통해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비성경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불충분한 지역 정보와 검토가 없이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개척 교회들은 지역 출신의 리더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싶어 한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개척교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리더들을 세우고 운영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된 경우도 많다. 책임의 문제를 떠나, 경륜이 있고 신뢰가 가는 리더를 세워 건강하고 신실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싶다.

9) 불충분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양성) 프로그램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문제는 바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개척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교회는 리더십 양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리더십 과정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리더십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리더십을 양육해야 한다. 즉, 리더를 발굴, 양육, 그리고 평가해 끊임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중간에 만드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개척 전부터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

10) 불충분한 사후 전략 및 기획

충분한 사전 전략 혹은 기획과는 별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사후 전략, 즉 개척 후의 전략과 기획이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 전에만 전략을 구상하고 추후를 대비하지 않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처음부터 바로 세워졌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경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3달된 교회와 3년 된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 즉, 개척교회에서 이제 자리 잡은 자립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다는 뜻이다.

전략기획은 장기적으로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다. 너무도 많은 개척 교회들이 “우리는 시작 단계이니 까”라는 변명을 대며 교회의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통할 수 있지만, 이 변명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략 기획을 수정하고 새롭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생각보다 빨리 그 시점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척 후 18개월 뒤에는 새로운 전략구상을 해볼 것을 권한다.

8) 불충분한 지역 정보

개척교회는 종종 해로운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된다. 예를 들면 과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리더급의 평신도에게 개척교회는 꽤 매력적인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그 지역출신의 리더를 세우는 일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3-5년 동안은 검증된 외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역 출신의 훌륭한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인의 비전이 아닌, 개척교회의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